

면지 표지 확정 후 삽입합니다.



# ●●● 목 차

1. 독도이슈와 국제법적인 접근 .....	1
김병렬 국방대학교 교수	
2. 독도수업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초등) .....	15
박정순 정목초등학교 수석교사	
3. 독도 : 역사적 권원과 ‘실효지배’ .....	37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 소장	
4. 독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중등)-현장사례 발표와 토론 ....	51
이미숙 오주중학교 교사	
5. 독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중등) .....	69
박재홍 성광중학교 교사	
6. 독도의 지리적 해석 .....	85
전영권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7. 독도교원집합연수 현장사례 .....	109
구종형 울곡고등학교 교사	



## 독도 교원집합연수 개요

### ■ 개요

- 연수 과정명 : 독도 교원집합연수
- 연수 대상(인원) : 전국 초·중등 교원 123명
- 연수 장소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 연수 기간 :
  - 1기 : '16. 7. 14.(목) ~ '16. 7. 16.(토) (3일, 15시간, 44명)
  - 2기 : '16. 8. 11.(목) ~ '16. 8. 13.(토) (3일, 15시간, 52명)
  - 3기 : '16. 8. 25.(목) ~ '16. 8. 27.(토) (3일, 15시간, 23명)
- 연수 경비 : 교육부(특별교부금) 지원
- 연수 내용 :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근거논리 확보, 독도수호의지 강화와 학교현장전파
- 이수 기준 : 연수 시간의 80% 이상 출석
- 연수 종류 : 직무연수

### ■ 시간표

1기 : 【 7월 14일 ~ 7월 16일 】

일자	시간	1교시	2교시	3교시	중식	4교시	5교시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3:00	13:00 ~ 13:50	14:00 ~ 15:00
2016년 7월 14일 (제1일차)	09:00 09:10	독도이슈와 국제법적인 접근		중 식	독도수업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초등)		
	개강식	김병렬(국방대)			박정순 (정목초등학교)		
7월 15일 (제2일차)	독도: 역사적 권원과 '실효지배'		유미림(한아문화연구소)	중 식	독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현장사례발표와 토론-중등-		
					이미숙 (오주중학교)		
7월 16일 (제3일차)	독도의 지리적 해석		전영권(대구카톨릭대)	중 식	독도교원집합연수 현장사례		15:00 ~ 15:10
					구종형(울곡고등학교)		수료식

2기 : 【 8월 11일 ~ 8월 13일 】

일자	시간	1교시	2교시	3교시	중식	4교시	5교시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3:00	13:00 ~ 13:50	14:00 ~ 15:00
2016년 8월 11일 (제1일차)	09:00 ~ 09:10	독도이슈와 국제법적인 접근		중식	독도수업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초등)		
	개강식	김병렬(국방대학교)			박정순 (정목초등학교)		
8월 12일 (제2일차)	독도: 역사적 권원과 '실효지배'		유미림(한아문화연구소)	중식	독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중등)		
					박재홍 (성광중학교)		
8월 13일 (제3일차)	독도의 지리적 해석		전영권 (대구카톨릭대학교)	중식	독도교원집합연수 현장사례	15:00 ~ 15:10	
					구종형 (울곡고등학교)	수료식	

3기: 【 8월 25일 ~ 8월 27일 】

일자	시간	1교시	2교시	3교시	중식	4교시	5교시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2:00 ~ 13:00	13:00 ~ 13:50	14:00 ~ 15:00
2016년 8월 25일 (제1일차)	09:00 ~ 09:10	독도이슈와 국제법적인 접근		중식	독도수업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초등)		
	개강식	김병렬(국방대학교)			박정순 (정목초등학교)		
8월 26일 (제2일차)	독도: 역사적 권원과 '실효지배'		유미림(한아문화연구소)	중식	독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중등)		
					박재홍 (성광중학교)		
8월 27일 (제3일차)	독도의 지리적 해석		전영권 (대구카톨릭대학교)	중식	독도교원집합연수 현장사례	15:00 ~ 15:10	
					구종형(울곡고등학교)	수료식	



2016년도 독도 교원집합연수 자료집

# 독도이슈와 국제법적인 접근

김 병 렬  
국방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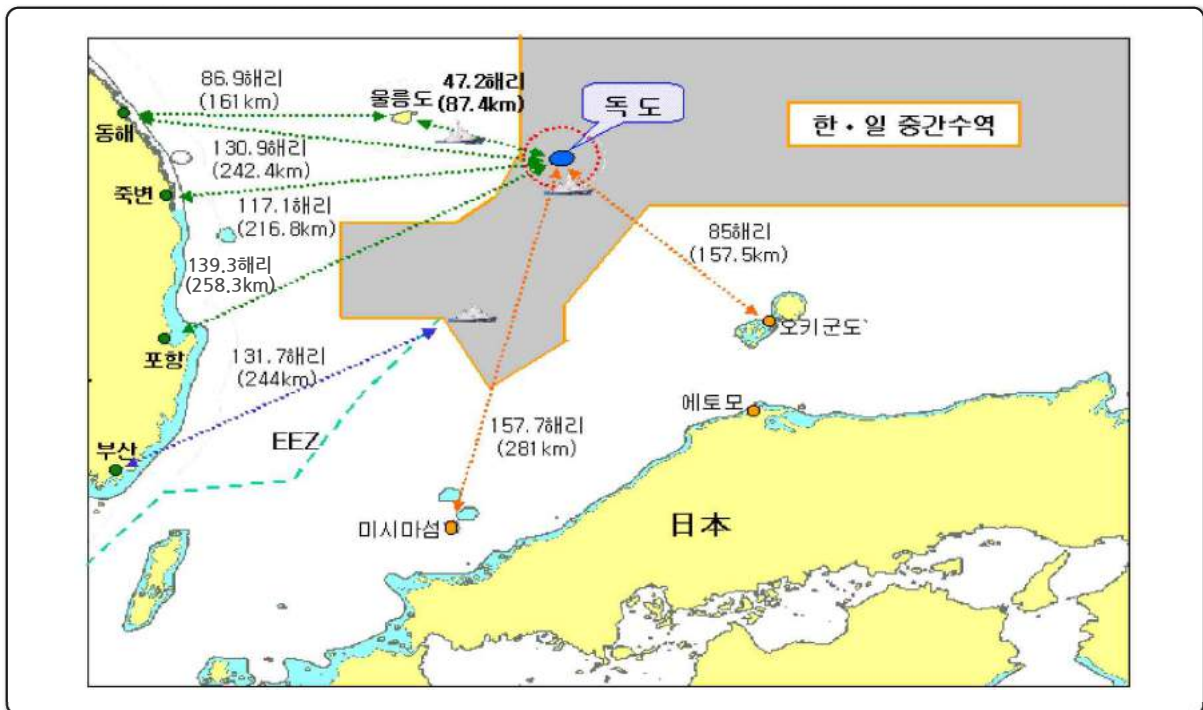


## □ 자연현황

형 성	460만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에 형성
구 성	동도, 서도 등 89개의 암초
환 경	가파른 절벽과 암초로 형성
지 질	현무암, 조면암류, 응회암류
물	물골, 급수
식 물	섬괴불나무, 해송, 왕거미풀 등 22종
수산동식물	오징어, 전복, 소라, 해삼, 문어, 미역 등
조 류	괭이갈매기, 습새, 바다제비 번식지

## □ 지리적 여건

- 위치는 동도 :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  
서도: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
- 동도, 서도 및 89개의 기타부속도서로 구성
- 거리는 경북 울진군 소재 죽변에서 117.1해리(216.8km), 포항 139.3해리(258.3km), 울릉도 47.2해리(87.4km)
- ※ 관보 제16030호(05.6.28)
- ※ 일본과의 거리 : 오키군도 85.0해리(157.5km), 미시마섬 151.7해리(281km)



□ 기상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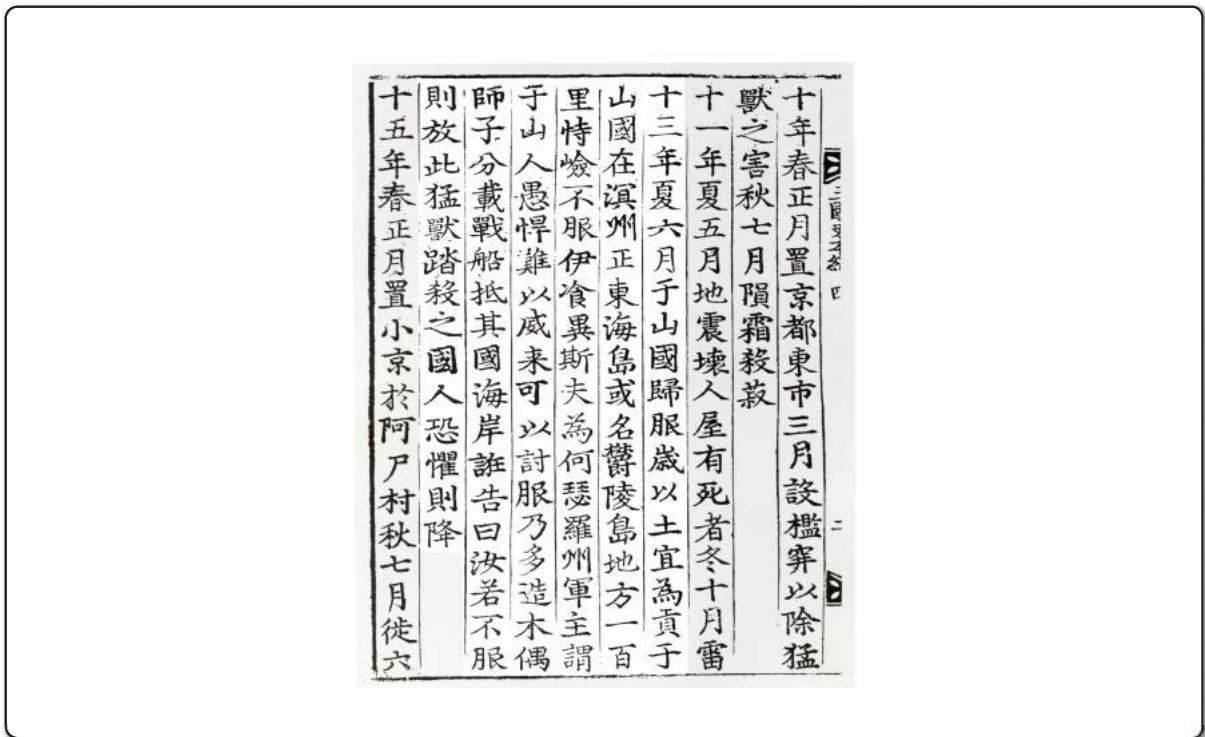
- 11~2월에는 풍랑주의보 발효, 6~8월은 농무로 시정불량, 7~8월은 태풍 등으로 기상 나쁜 날이 많음(기상양호일은 연평균 약 150일)
- 연평균 기상특보(태풍, 파고 3m이상 풍랑주의보 등) 52회 84일, 파고 2m이상 기상불량 250일

□ 독도 거주자 현황

- 주민등록상 거주자 : 20세대 21명(2014. 12. 31 기준)
  - ※ 김성도, 김신열, 독도경비대원 13, 독도등대원 6
- 본적을 둔 사람 : 3,000여명
  - 사이버 독도 주민 : 6,500여명

2. 독도와 관련된 한국사 이해

□ 삼국사기(1145)





## □ 독도문제의 원인

고려시대 삼별초세력의 확장을 경계하던 조정은 삼별초세력의 확장도 막고 왜구의 침탈도 저지하기 위하여 서남해안의 섬 안에 거주하던 백성들을 모조리 육지로 데리고 나오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거제도(1271년), 진도는 1350년에, 남해도는 1351년에서 1374년 사이에 백성들이 한 사람도 살지 않는 빈 섬이 되었으며, 그밖에 압해도, 흑산도, 장산도 등의 섬들이 모두 공도화(空島化)되었다. 삼별초세력과 그 동조세력을 역도(逆徒)로 간주했던 고려왕조의 입장에서 만에 하나 삼별초세력이 왜구와 손을 잡는다고 하면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도조치(空島措置)를 수행하면서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고려 말의 이러한 공도조치는 조선왕조에 들어와 더욱 강화되고 전면화되었다. 일시적인 '조치'의 차원을 넘어서서 법으로 까지 규정하는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 자리잡아 갔던 것이다. 허락 없이 섬에 잠입한 자는 장(杖) 1백대의 형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섬으로 도피한 자는 모반죄에 준하는 것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거론될 정도였다.

게다가 세종 때 대마도 정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왜구의 침탈 또한 빈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왜구들이 섬의 백성들과 야합하여 본토를 침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필요 이상으로 강경하게 공도정책을 추진하는 원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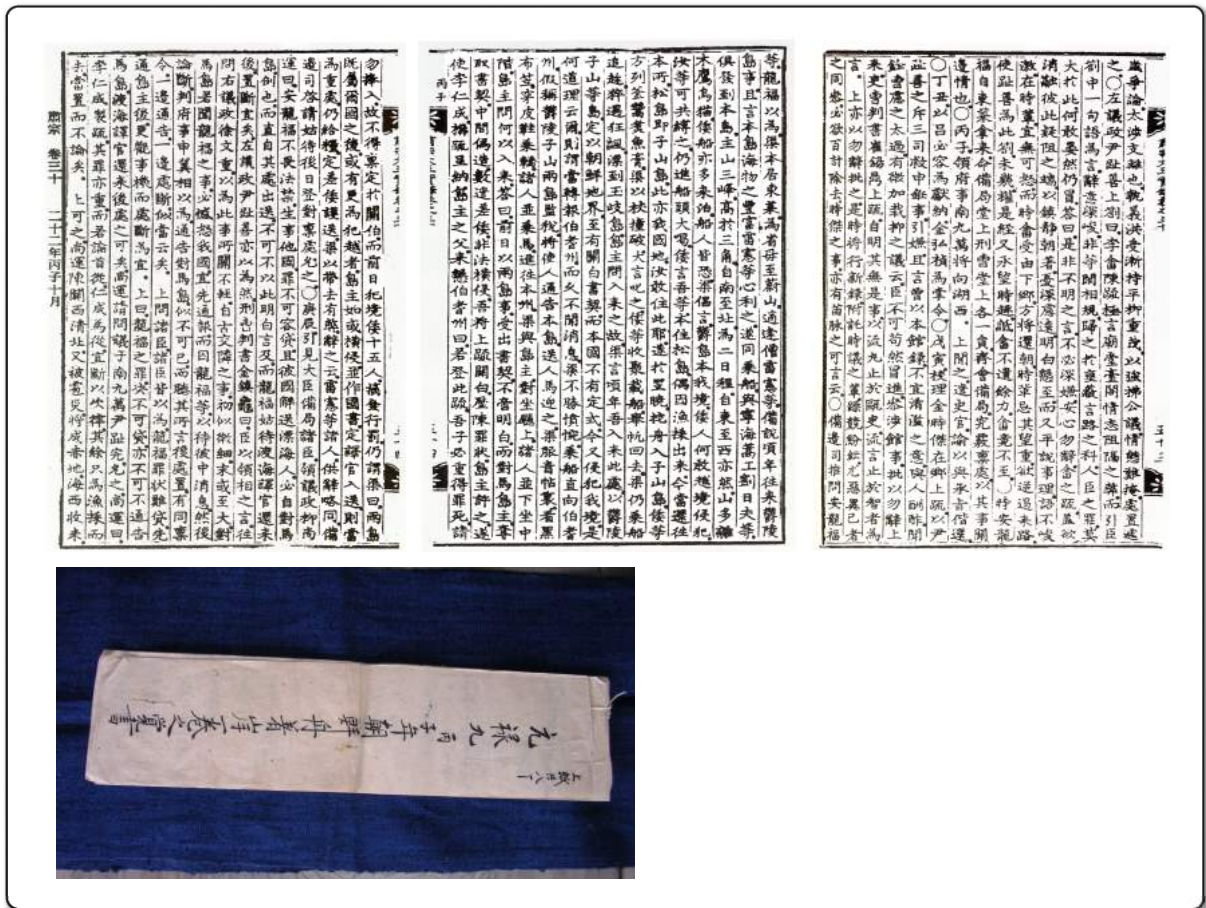
따라서 고려조에서 서남해안의 섬들에 대해서만 시행되었던 공도정책이 동해안까지 확대 추진되어 울릉도 역시 1430년경에는 완전히 빈 섬이 되고 만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군현(郡縣)이 철폐되었으며, 몰래 섬에 들어가 살고 있던 주민들은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어 엄벌에 처해졌다.

이처럼 섬이 비워지게 되자 왜구들이 침탈의 징검다리로서 이용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는 중국의 황당선(荒唐船)까지 사수도와 추자도 등지에 출몰하면서 조운로(漕運路)까지 위협하게 되었다. 조운로가 위협당하게 되자 진도, 완도, 위도, 고금도, 청산도, 흑산도, 고돌산도, 신지도 등에 황급히 수군진을 설치하게 되지만 울릉도는 1883년 재개척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공도정책이 계속된다.

이처럼 울릉도가 빈 섬으로 장기간 방치되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출입을 하다가, 1625년에 독점적인 어로활동을 위하여, 오야 진기치(大谷甚吉)와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가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로부터 독점적인 어로면허를 받게 된다. 이후 두 집안이 교대로 울릉도에 와서 전복을 잡아가는 행위가 1693년까지 계속된다. 이 때 두 집안은 독도를 울릉도로 향

해하는 표지로 삼기도 하고 울릉도에서의 어획량이 적을 때는 독도에서 추가적으로 전복을 잡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어로행위는 1693년과 1696년 2회에 걸쳐 도일한 안용복의 활동에 의해 수차례 조선과 공문을 주고받은 끝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함으로써 일단락이 되었다.

□ 안용복의 활동(1693-1697)



□ 러일전쟁을 위한 독도침탈

안용복의 활동을 계기로 가까스로 되찾아왔으면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그 후에도 울릉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메이지유신(明治維新)후에 다시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들어와 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독도를 재인지하게 되며, 1903년부터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라는 사람이 독도에서 강치(바다사자)를 사냥하게 된다.

1904년 러일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처음에 러시아의 기함 페트로파블로프스크호를 격침시키고 러시아 해군 제일의 전략가였던 마카로프제독을 전사케 하는 등 승승장구하는 듯했다.

하지만 5월에 들어서 요시노(吉野), 가스카(春日)의 충돌 침몰, 하쓰세(初瀬), 야지마(八島)의 기뢰접촉 침몰 등 해군력의 1/3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에는 무쓰마루(常陸丸)와 이즈미마루(和泉丸), 사도마루(佐渡丸)가 격침되며 여기에 승선하고 있던 근위후비연대 1,095명이 수장되는 등 완전히 제해권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일본 군부는 만주로 파견된 일본군의 고립을 면하기 위하여 동해상으로 남하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함대의 군함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미 일본은 “조선에 관해서는 여하한 경우라도 실력으로써 우리의 권세 아래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각의에서 결정한 후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여 필요한 부지를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

군함이 차례로 격침되어 전력이 약화되자 다급해진 일본 해군은 기 체결된 한일의정서를 근거로 6월 27일부터 7월 22일까지 죽변·울산·거문도·제주도 등 전략적인 지점에 망루를 건설하고 이들을 해저전선을 통해 연결하게 된다. 그리고 울릉도에도 망루를 건설하여 죽변과 해저전선을 통해 연결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망루 건설부지는 주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징발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또다시 다카시마마루(高島丸)를 비롯하여 많은 함정들이 격침당하게 되자 일본은 할 수 없이 여순을 함락시키지 못했음에도 부득이 중순양함 6척 중에서 4척을 뽑아 대한해협에 배치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울릉도의 동남부와 서북부의 2개소에 긴급히 망루를 건설하여 9월 2일부터 사용하면서 25일까지 해저전선을 부설한다.

한편 러시아는 울산해전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함대가 패배하게 되자 발틱함대의 동파(東派)를 결정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9월 22일 울산해전에서 피해를 입은 블라디보스토크 함대가 수리를 완료하고 출동했다는 첩보까지 입수하게 되자 일본 해군은 다급해졌다. 발틱 함대의 도착도 문제였지만 우선 전력을 회복한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에 의한 대한 해협의 봉쇄가 더 다급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일본 해군은 울릉도 망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독도에 망루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겠다고 계획하게 된다. 울릉도 망루공사와 공사를 위한 보급 활동을 하는 가운데 인접한 독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입수하게 된 일본 해군이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했던 것이다.

니타카마루(新高丸)와 쓰시마마루(對馬丸)를 통해 독도를 정찰하도록 한 일본 해군성은 서도 동쪽면의 하단부와 동도 남단의 평탄지에 망루를 설치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시급히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자 하나 엄혹한 겨울 날씨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듬해 봄까지 기다리게 된다. 1월 9일 발틱함대가 수에즈운하를 지났다라는 보고를 받은 해군성은 망루설치를 위하여 내무성에 독도편입을 위한 각의개최를 비밀리에 요청하게 된다. 요청을 받은 내무대신은

1월 10일 총리대신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공문을 보내 각의 개최를 요청하고, 28일 해군상 등 11명의 각료가 참석한 각의에서 독도편입을 결정한다. 군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내각에서 군사상 필요한 독도를 편입하겠다는데 반대할 각료는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는 시마네현 지사에게 2월 22일 편입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던 것이다.

편입 후에는 엄혹한 겨울 날씨와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와의 전투 등으로 망루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본해 동수역 총합시설계획’에 의해 울릉도에 추가 망루 1개소와 독도망루를 8월 19일까지 건설하게 된다. 그리고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거쳐 일본의 마쓰에(松江)까지 해저전선을 부설한다.

## □ 무주지의 합법적 편입으로 가장

이처럼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 탈취하였음에도 일본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무주지를 합법적으로 편입한 것이라고 강변해왔다.

당시 「독도 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했던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가 작성한 이력서를 보면 “이 섬이 울릉도에 부속되어 조선의 영역인 것으로 생각하여 장차 조선 정부에 이를 요청하고자 상경하여 여러 가지로 획책하던 중” 내무성 당국자로부터 “이 시기를 맞아 조선의 땅이라고 의심이 되는 황막한 일개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암초를 거둬으로써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여러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조선병합의 야심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의심을 크게 사는 것은 이익은 매우 적은데 반해 결코 용이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변명과 진술을 하더라도 각하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 즉 출원서를 제출하려는 나카이 요자부로나 이를 허가해주는 내무성 당국자나 모두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무성 당국자의 불허방침에 낙담하였던 나카이 요자부로는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山座圓二郎)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게 되고 야마자 엔지로는 “시국으로 보더라도 그 영토편입이 시급히 요구되며, 망루를 건축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 감시상 지극히 유리하며, 특히 외교상으로는 내무성과 같은 고려를 요하지 않으니 속히 원서를 본성에 회부시키라”고 하면서 나카이 요자부로를 고무시킨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외교적인 우려(조선 병합의 의심을 사게 되는 것)를 외무성이 아닌 내무성의 당국자가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편입원을 내무성이 아닌 외무성으로 내라고 한 것이다. 결국 나카이 요자부로 자신도 외무성 정무국장의 지시가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외무내무농상무성으로 제출했던 것이다.

여기서 청원이 정상적인 것이었다면 외무성은 당연히 독도가 조선의 영토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고, 그 결과를 받아서 내무성이 편입여부를 결정하면 농상무성이 나카이 요자부료에게 강치사냥 허가를 내주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외무성은 독도가 조선의 영토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아니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던 것이다.

이미 1870년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에 부속하게 된 시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고, 내무성에서 1876년에 도쿠가와 막부 시절의 모든 문서를 조사한 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령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태정관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의 확인 결재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쓰키 슈지(大槻修二)가 1886년에 발간한 『개정일본지지도』에 독도를 “오키의 서북 해상에 송도, 죽도가 있는데 두 섬은 거의 1백리 정도 떨어져 있고, 조선에서는 울릉도라 칭한다. 근래 그 나라의 속도로 정해졌다”고 되어 있으며, 1900년에 쓰네야 세이후쿠(恒屋盛服)가 식민사관에 기초하여 편찬한 『조선개화사』에도 울릉도를 설명하면서 “주변에 크고 작은 6개의 섬이 있다. 그중 저명한 것이 우산도(일본인은 송도라고 한다), 죽도 등등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편입의 주무를 담당했던 농상무성 수산국장 마키 나오마사(牧林眞)가 발간사를 쓴 『한해통어지침』, 해군성 수로국장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가 발간한 『환영수로지』·『조선수로지』는 물론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가 독도편입 1년전인 1904년에 서문을 써서 발간한 『최신한국실업지침』 등에 모두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는 당시나 지금이나 태연하게 무주지를 편입한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 □ 끈질긴 굳히기 작전

이처럼 독도를 편입한 일본은 다시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독도가 자기네 것이라고 하는 온갖 표시를 다음과 같이 하게 된다. 마치 도둑질한 물건에 자기 것이라는 표시를 하듯이....

1905년 1월 28일 각의에서 편입을 의결한 후 망설이다가 2월 15일에서야 내무대신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편입사실을 고시하도록 지시한다. 이 지시에 의하여 동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는 독도의 편입을 고시하였으며, 동년 5월 관유지 대장에 등재한다. 동년 8월 19일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 다케기치(松永武吉)가 독도에 상륙하여 시찰하고, 이듬해인 1906년 3월에는 시마네현 3부장 진자이 요시타로(神西由太郎) 등이 독도를 시찰한다.

1905년 4월 14일 현령 제18호로 독도에서의 강치사냥과 관련하여 「어업취체규칙」을 개

정하였으며, 러일전쟁 중임에도 7월 2일 나카이 요자부로에게 강치사냥을 허가하였고, 이들의 강치 남획으로 독도가 황폐화되자 어장규정에 독도에서의 강치사냥을 규제하는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1908년 「어업취체규칙」을 개정하여 독도주변에서 강치사냥 이외의 어업을 금지하였다.

1906년부터 관유지로 등재한 독도를 나카이 요자부로 등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1926년 오키도청의 폐지에 따라 오키지청으로 소관을 변경하고, 1939년 고가촌(五箇村)의 구역으로 편입하였다. 1939년 고바야시 겐타로(小林源太郎)에게 인광시굴권을 허가하고, 1940년에 독도를 해군용지로 변경하여 마이즈루진수부(舞鶴鎮守府)의 관리하에 둔다. 마이즈루진수부는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야하타 조시로(八幡長四郎)에게 용지의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1945년 11월 1일 국유재산법시행령에 의해 독도를 해군성으로부터 다시 대장성으로 이관하였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이 평화선을 선포하자 의도적으로 동년 7월 26일 미일안전보장조약에 따른 행정협정 제2조를 빙자하여 독도를 주일 미군의 해상 연습 및 훈련구역으로 제공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자국령으로 인정받고자 하였다. 한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1953년 3월 19일 독도가 연습구역에서 해제되자 독도경비대의 주둔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6월 19일 시마네현 고시 제35호로 독도 주변 수역에서의 강치사냥권을 오키도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면허하고 동일부로 하시오카 다다시게(橋岡忠重)에게 사냥을 허가한다.

1959년 히고 도오루(肥後亨)가 의도적으로 독도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거주가 불가능한데도 국가가 그 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면서 1960년에 국가를 대상으로 5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하였으며, 1961년에는 쓰지토미 조우(辻富造)가 1954년 인광석 채굴허가를 받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여 채굴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시마네현에서 광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광구세 징수의 위법성과 납부의무 부존재의 확인’과 국가에 손해배상의 지불을 구하였다가 패소하였다.

우리의 경비대가 있기 때문에 거주나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강치사냥 허가를 내주고, 주민등록을 하고, 인광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이를 빌미로 소송을 하는 것 등이 모두 독도가 자기들 것이라고 억지로 표시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 것들이지만 일본은 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 독도의용수비대 활동(1954-1956)



3. 독도이슈에 대한 바른 이해

□ 국가의 정체성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영토의 수호

□ 우리의 자세

- 독도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교사들의 사명감

## 4. 결론(국제법적인 접근)

### □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

- 국제법적인 문제
- 국제관례의 경향

### □ 국가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세

※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안용복과 의용수비대의 활동은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사계절, 031-955-8588)

일본사람들의 주장은 『독도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주장』 (다다미디어, 02-2266-8114)

한일간의 주장 비교는 『독도논쟁』 (다다미디어, 02-2266-8114)을 참조하세요.



2016년도 독도 교원집합연수 자료집

# 독도수업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초등)

박 정 순  
정목초등학교 수석교사



# 독도수업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초등)

박 정 순

정목초등학교 수석교사

## 내 용 목 차

1. 섬에 대한 인식의 전환
2. 독도교육 10차시
3.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가) 역사극 수업으로 배우기
  - 나) 프로젝트 수업으로 익히기
  - 다) 짝 토의토론 수업으로 생각 나누기
  - 라) 협력학습으로 함께 하기

## 1. 섬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북 5도민 회관에서 / 함민복	섬 / 함민복
...	
미국과 소련 사이에	물 울타리를 둘렀다
섬이 있었다	울타리가 가장 낮다
나도 그 섬에서 태어났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	

어느 날 아침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일기예보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를 한반도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일기예보에서 보여주는 지도는 남한만 떨어져 있는 섬 지도였다. ‘아, 우리 영토가 저렇게 작아져버렸구나.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를 섬으로 인식하고 자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사가 단지 先生(먼저 태어난 자)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반성과 함께 우리 영토의 회복이라는 과제가 지금 우리 세대에게 부여되었다는 성찰이 일었다.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박대통령의 선언과 함께 5년 내에 통일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가 북한의 핵자구책에 말려 통일정책이 발이 묶여버린 상황과, 일본이 2015년 4월 6일 일률

적으로 일본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 내용을 실기로 결정한 교육정책을 보면서 독도교육으로부터 시작하는 국사교육으로 우리 영토를 지켜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일본은 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 일본의 섬과 한국의 섬을 검색해보면 일본은 6,852개로 딱 정해져 나오는데 한국의 섬 수는 ‘귀신도 모른다’는 게 정답이다.

2005년 해양수산부 발표로는 4,198개라고 하는데 이 중 남한의 섬 가운데 무인도가 2,679개로 전체 85%를 차지하고 유인도는 473개로 15%를 차지한다.<sup>1)</sup>

국토해양부가 2010년 1월 공식집계로 제시한 섬 총수는 3358개이다. 이중 무인도서는 2876개로 전체 섬의 85.65%를 차지한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잠정 집계한 개수는 4201개이다.<sup>2)</sup>

독도를 무주지 선점하였으니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을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다. 센카쿠열도를 선점하였고 러시아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남쿠릴 열도 4개 섬을 끝까지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일본을 보며 독도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 영토수호의 필수 과업이며, 그래서 독도교육은 중요해진다.

일본이 중입 대비 모의고사에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나라는?’과 같은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우리를 자극함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국제사회가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sup>3)</sup>에서 함민복의 시, 「섬」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바다가 울타리라고 생각하던 것을 길이라고 생각을 전환할 때이다. 독도 바로알기 교육을 통해 우리 영토와 영해를 지켜내고 바다로 세계로 진출할 기회와 기상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 2. 독도교육 10차시

일본의 초중등학교 독도교육에 대비하여 우리 교육청은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독도교육 10차시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한 『독도 바로알기』 책은 독도교육을 위한 다양한 내용과 활동자료를 실어 이 책의 순서대로 10차시를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보급이 6학년에 한정되어 있고 시기 또한 학기 시작 전이 아니라 학기 중에 배달이 된다. 책이 보급되는 시점이 교육과정이 다 짜인 후라서 독도교육을 위해 10차시를 빼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학기 독도교육주간이나 2학기 독도의 날 주간에 독도교육을 하게 된다.

정규교과가 아닌 독도수업은 교사나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다. 그만큼 수업에 집중력이 떨어

1) <http://www.lumenjo.com/xem4/12357>,

2) <http://cafe.daum.net/succeed131718/MWa5/1?q=%C7%D1%B1%B9%C0%C7%20%BC%B6%20%B0%B3%BC%F6>

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02312015&code=97020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02312015&code=970203)

어진다는 뜻이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독도관련 지식전달 수업은 학생들의 생각과 의지를 변화시킬 힘이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싶도록 학생 배움 중심의 다양한 학습방법이 요구된다. 2016 독도교육실천연구회 독도드림팀에서는 학년운영이나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독도교육을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그 중 교사가 혼자서 가르치는 수업이 아닌 학생 협력 수업으로 역사극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질문중심 짝 토의토론 수업, 협력학습으로 하는 독도수업을 예시로 보자.

### 3.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독도교육실천연구회 독도드림팀이 개발하고 있는 교과관련 주제통합 독도수업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교과 연계	수업 주제
국어 +독도교육	안용복 역사극 수업
과학 +독도교육	독도의 생성과정과 화산활동
사회 +독도교육	독도 프로젝트 수업
진로교육 +독도교육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이야기
국사 +독도교육	대한민국의 발전과 독도 질문중심 수업

#### 가) 역사극 수업으로 배우기

독도교육 10차시 중 교육연극과 핫시팅 기법을 활용한 역사극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차시	학습 내용 및 활동	비고
1	나는 독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독도의 날과 다케시마의 날 알아보기	
2	일본은 17세기 중반에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하였을까? 그런데 왜 일본은 17세기 말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을까?	
3-4	안용복의 역사자료 알아보기 안용복 역사극 만들기	본시
5	일본의 주장들 더 알아보기 한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6	독도의 역사 - 연표 만들기	
7	지도로 놀자 - 고지도 속의 독도 찾기	
8	독도 위의 자원 알기 독도 바다 속 들여다보기	
9	독도사랑 시 짓기 캘리그래피로 독도 알리기	
10	독도알림-모듬책 만들기	

일본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데 크게 걸림돌이 되는 기록이 안용복 관련 역사기록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거짓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의도를 학생들에게 바로 알게 하고, 안용복이 살았던 때의 정사인 『속중실록』의 기록을 함께 읽음으로 우리역사기록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알게 함과 더불어 독도의 영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국어과와 사회과의 통합으로 2차시 연속 수업으로 계획하였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따로 떼어서 수업하여도 되겠으나 다만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일주일의 간격이 생기면 전 차시의 감동과 느낌이 사그라져서 다음 차시인 연극수업으로 이어지는데 마음열기의 시간이 더 필요해질 것이다.

교육연극을 수업에 도입하였다. 학습을 위해 필요한 위인들을 소개할 때 학생들은 “그 사람 죽었죠?” 라고 시들해한다. 한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인물을 만나보는 방법이 가장 좋다. 역사적 인물이라면 역사극을 통해 학생들이 그 시대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되어보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연극의 효용성이 있다. 창의력 신장, 사회성발달, 교과학습 향상이란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연극 참여자는 집단의 일원이 되어 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다. 언어와 동작을 통해 자기 표현력이 신장되고 타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힘이 커진다. 이야기와 상황연기를 통해 학습강화의 효과가 있다. 또한 비판력과 집중력을 키워줄 수 있다.

역사기록 읽기와 역사극으로 재현하기를 모두 모둠토의 협력학습으로 진행하였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을 키우고, 비교하며 비판하여 바른 생각을 만들어가는 모둠토의 협력 학습으로 독도를 지키려는 영토주권의식을 모두가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

〈역사극 수업의 흐름〉

학습일시	2016. 3. 23.(수) 5~6교시	대상	6학년 5반	수업자	박정순
학습단원	3. 안용복 역사극 만들기	교과	국어·사회	차시	3-4 / 10
학습목표	독도를 지킨 안용복의 역사를 알고, 안용복 역사극으로 영토주권의식을 기른다.				
협력학습 기법	○ 모둠토의 : 역사자료를 통해 독도문제 이해하기 ○ 교육연극 : 안용복의 역사자료로 역사극 만들기				
인성핵심 역량	의사소통	자기관리	심미적/감성	갈등관리	공동체
	○		○		○

단계 (시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자료(▶) 유의점(☹)	인성핵심역량(●) 토의토론기법(■)
적용하기 (30')	모동별 역사극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동별로 역사자료의 한 장면을 정해 역사극으로 만들기</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용복의 1차 울릉도와 일본 방문 재현하기</li> <li>안용복의 1차 일본 방문 후 조선 조정 재현하기</li> <li>안용복의 2차 울릉도, 독도와 일본 방문 재현하기</li> <li>안용복의 2차 일본 방문 후 조선 조정 재현하기</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동연극을 보고 인터뷰 질문을 모동토의를 통해 정해서 출연자에게 질문하고 답변하기</li> </ul>	<p>▶ 역사극 대본</p> <p>☹ 6인 1조로 역할을 정해 역사장면을 연극으로 재현시킨다.</p> <p>☹ 모동연극과 토의에 적극참여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잘 모으는지 확인한다.</p>	<p>● 심미적/감성</p> <p>■ 모동토의</p>
다짐하기 (10')	학습정리 및 차시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안용복의 역사자료를 알고 느낀 점 발표하기</li> <li>연극을 통해 느낀 점 발표하기</li> <li>차시예고 -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대응 더 알아보기</li> </ul>		<p>● 공동체</p> <p>평이 수업을 통해 영토주권의식이 길러졌는지 확인한다.</p>
마음 열기 (10')	전시학습 상기와 학습문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시학습 상기 - 일본이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리게 만든 역사적 인물은 누구인가?</li> <li>- 안용복 애니메이션을 보며 독도를 지킨 역사적 인물 알기</li> <li>학습문제 확인</li> </ul> <p>독도를 지킨 안용복의 역사를 알고, 안용복 역사극으로 영토주권의식을 기른다.</p>	<p>▶ 안용복 애니메이션</p> <p><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3wg4h9g43lk">https://www.youtube.com/watch?v=3wg4h9g43lk</a></p>	<p>● 공동체</p>
이해하기 (30')	역사자료 알기 및 모동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용복의 역사자료 알기</li> <li>- 조선왕조실록 속종실록의 역사기록 읽기</li> <li>- 역사기록의 의문점 찾아 모동질문 만들기</li> <li>- 모동토의로 역사와 인물 이해하기</li> </ul>	<p>▶ 조선왕조실록 속종실록 자료지</p>	<p>■ 모동토의</p> <p>● 의사소통</p> <p>평모동토의에 적극참여하고 친구들과의 의견에 경청하는지 확인한다.</p>

나) 프로젝트 수업으로 익히기(개발자 : 응암초 수석교사 채정희)

### 1) 독도교육의 목표

분류	내용
독도교육의 목적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수호 의지를 갖추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적합한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한다.
독도교육의 목표	독도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연원을 살펴봄으로써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초등학교 독도교육의 목표	독도의 자연환경, 지리와 역사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진다.
초등학교 독도교육의 내용	① 독도의 자연환경 및 지리적 특성에 대한 기본적 이해 ② 독도의 중요성과 독도의 역사적, 환경적, 정치군사적, 경제적 가치 이해 ③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갖기의 의미와 방안 탐색

### 2) 독도교육 관련 핵심 성취기준

과목	핵심 성취기준
사회	사6011 지도나 지구본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찾을 수 있고 그 중요성(예, 독도, 비무장 지대, 접경지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사6054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러시아 간의 갈등 또는 협력 사례를 알아보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주변 국가와의 영유권 갈등 등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국가 간 갈등 문제를 통해 바람직한 국토관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역사	역6051, 개항을 전후해서 외세의 침략을 막으려고 노력한 대표적인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
	역6053, 일제 강점기에 국내외에서 전개된 민족 독립 운동을 주요 인물을 통해 탐구할 수 있다.
국어	국1415,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발표를 평가하며 듣는다.
	국1634-2 주변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 3) 독도교육 관련 핵심역량

핵심역량	의미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 4) 독도교육 관련 단위

과목 및 학년	단위 명
국어 4학년 1학기	9. 생각을 나누어요 ('독도는 우리 땅' 영상 매체를 보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292-297쪽)
사회 5학년 1학기	1. 살기 좋은 우리 국토 (1. 소중한 우리 국토 10-23쪽)
사회(역사) 6학년 1학기	2.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 운동

#### 5) 독도 프로젝트 수업 설계

##### 가. 교과 학습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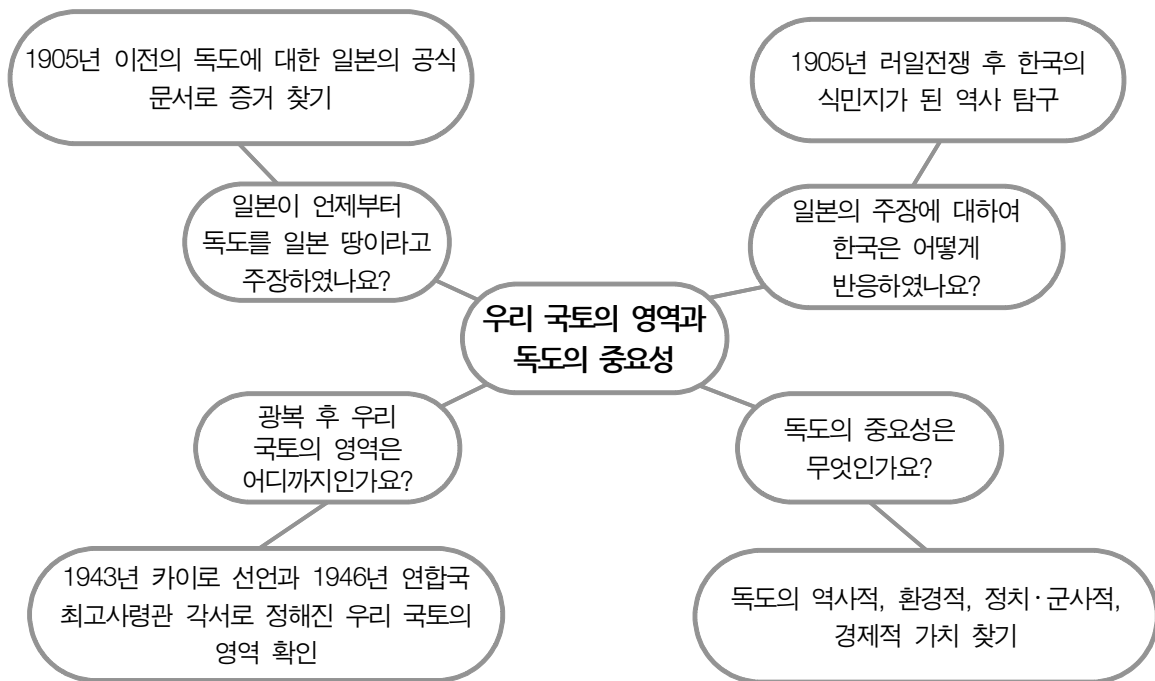
과목 단위	5학년 사회 1. 소중한 우리 국토	차시	10-11 / 11
학습주제	우리 국토의 영역을 찾고 독도의 중요성 설명하기		
핵심 성취기준	사6011 지도나 지구본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찾을 수 있고 그 중요성 (예, 독도, 비무장 지대, 접경지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교과목표	우리 국토의 영역을 찾고 독도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핵심역량 목표	1.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 3. 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나. 수업의 전개

단계	수업의 전개	시간 (분)	자료
도입	▶ 동기유발 -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 우리 국토의 영역을 살펴보고 독도의 중요성을 브레인스토밍하기 - 일본에 우리 국토를 빼앗겼을 때 그 조약을 강요한 인물을 무찌른 의병 찾기(을사조약 후 안중근)	5	동아시아 지도 퀴즈
문제 상황 인식	▶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요? -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므로 일본 시마네 현으로 편입시킨다고 고시하였다. -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본은 공식문서로 세 번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밝혔다.(1696년 독도도해금지령, 1870년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1877년 태정관 지령문 등)	15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린 일본 공식문서

단계	수업의 전개	시간 (분)	자료
문제 상황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이 1905년에 독도가 일본 시마네 현에 편입된다는 고시에 대하여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였나요?</li> <li>- 1904년 2월 10일 발생한 러일전쟁에 의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li> <li>▶ 1945년 광복 후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 되었는가요?</li> <li>- 1943년 카이로선언에서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빼앗은 영토를 포기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1946년 1월 20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각서 제677호에서 독도를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일본 땅에서 제외하였다.</li> </ul>		러일전쟁 사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  학습지
모둠 탐구 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공식 문서, 러일전쟁과 광복 후 상황을 바탕으로 독도의 중요성을 탐구할 수 있는 주제를 모둠별로 정해보자.</li> <li>- 모둠별로 독도의 중요성에 관하여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여 질문 목록을 작성한다.</li> </ul>	15	
탐구 계획 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구 주제에 따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 목록을 참고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여 학습 계획을 세우고 결과보고의 방법을 결정한다.</li> </ul>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별 탐구 주제를 발표하고 벽에 게시한다.</li> <li>▶ 차시예고</li> <li>- 탐구 계획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 보고하기</li> </ul>	5	

다. 예상 주제망



## 6. 그림 자료와 질문 및 설명

### 가. 동기 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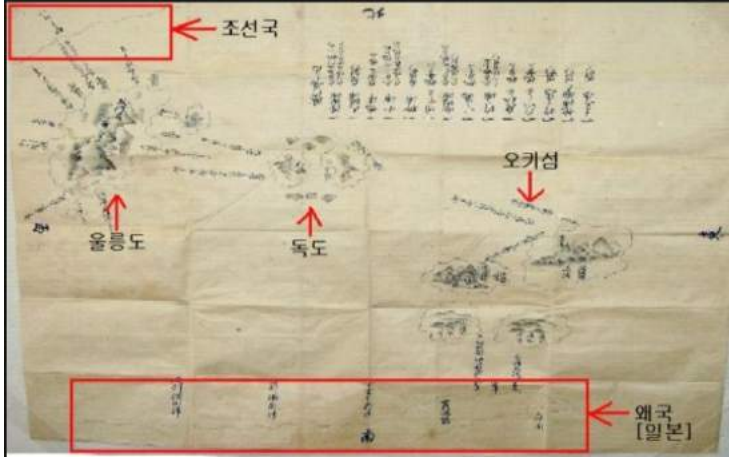
5학년 사회과에서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 또는 우리 국토의 영역을 학습할 때 독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여 독도의 중요성을 브레인스토밍한다. 우리 나라의 주변 국가를 살펴 보고 우리 국토의 영역을 정할 때 동쪽 끝인 독도가 중요함을 발견하게 한다.

그림 자료	질문
 <p>A map of East Asia showing South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South Korea is highlighted in green. The map includes a scale bar for 400km and labels for '중국' (China), '일본' (Japan), '몽골' (Mongolia), and '러시아' (Russia).</p>	<p>▶ 우리나라의 주변 국가는 어디인가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고, 주변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있다. 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이므로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에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토의 장점을 이용하여 여러 나라와 문화 및 물자 등을 교류하며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13쪽).</p>
 <p>A detailed map of South Korea showing territorial boundaries. Labels indicate '북쪽 끝: 유원진' (North end: Uyuwjin), '서쪽 끝: 비단섬' (West end: Bidan Island), '남쪽 끝: 마라도' (South end: Marado), and '동쪽 끝: 독도' (East end: Dokdo). The map also shows various islands like '울릉도' (Ullungdo) and '독도' (Dokdo). A scale bar for 100km is provided. Source: [출처: 국립해양조사원, 2014.]</p>	<p>▶ 우리 국토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우리 국토의 영역은 영해의 동쪽 끝인 독도, 북쪽 끝인 유원진, 서쪽 끝인 비단섬, 남쪽 끝인 마라도를 잇는 부분이다(19쪽)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영해)는 기선에서 12해리(약22km)까지이다.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12해리까지의 바다가 우리 국토이다(독도 바로알기 13쪽). 동쪽 끝인 독도는 우리 국토의 영역에서 중요하다.</p>

### 나. 주제 결정을 위한 예비 토론

- 1) 최근 일본 외무성은 공식적으로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이 부르는 이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공식 문서로

세 번 밝혔다.(1696년 울릉도 독도 도해금지령, 1870년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 1877년 태정관 지령문 등)

그림 자료	설명
 <p data-bbox="293 931 852 965">〈그림 1〉 에도 막부의 울릉도 부근 지도(1696년)</p>	<p data-bbox="959 510 1388 801">① 1696년 에도 막부(1609~1868)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하였다.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영지가 아닙니다. 독도는 울릉도로 향하는 길에 있어서 잠시 들르는 섬이었지만 우리 뜻토리 번 영지도 아니고 일본의 어떤 지방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호사카 유지, 대한민국 독도 교과서 91쪽)</p> <p data-bbox="959 808 1388 913">조선은 1694년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해 울릉도와 그 주변을 조사하게 하였다.</p>
 <p data-bbox="331 1391 815 1424">〈그림 2〉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1870년)</p>	<p data-bbox="959 1099 1388 1317">② 1870년 메이지 정부(1868~1912)는 외무성 관리를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에도 시대에 두 섬이 조선에 속한다고 일본이 인정했다.’</p>
 <p data-bbox="264 1839 884 1872">〈그림 3〉 태정관 지령문에 삽입된 기죽도약도(1877년)</p>	<p data-bbox="959 1559 1388 1776">③ 1877년 태정관 지령문에 울릉도와 그 밖에 있는 한 섬은 본방과 관련 없다고 하였으며, 여기에 삽입된 기죽도약도를 보면 그 밖에 있는 한 섬이 동남쪽에 그려진 송도(지금의 독도)임을 알 수 있다.</p>

2)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므로 일본 시마네 현으로 편입시킨다

고 고시하였다. 1868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77년간은 거의 5년에 한 번 전쟁이 일어나던 시대였다.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청나라와 러시아를 상대로 1894년과 1904년 두 차례의 전쟁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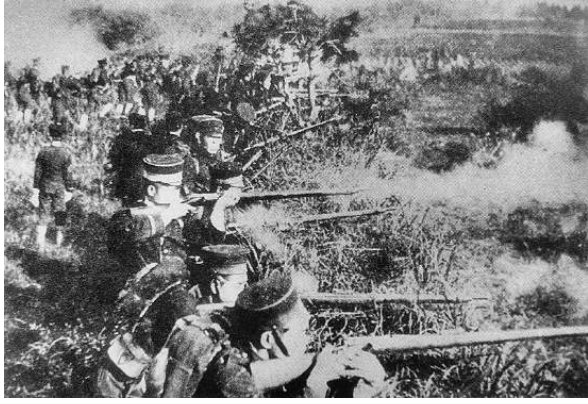

그림 자료	설명
 <p>〈그림 4〉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1894년)</p>	<p>1894.2. 갑오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조선이 청나라에 병력을 요청하자 일본은 1894.7.23. 한반도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고 조선왕궁을 점령한다. 같은 날 일본 함대가 인천 앞 바다 풍도에서 청나라 군함을 공격하고 8.1. 청나라에 선전포고를 한다.</p>
 <p>〈그림 5〉 동학농민군 학살하는 일본군(1895년)</p>	<p>일본군은 1894.가을에 다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1895.봄까지 진멸하여 3만~5만 명을 살해하고 동학농민운동을 지휘한 전봉준을 처형한다.</p>
 <p>〈그림 6〉 청·일 전쟁의 전개</p>	<p>청·일 전쟁에서 중국이 예상과 달리 참패를 당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배상금은 2억 냥과 타이완을 식민지로 받은 일본은 중국에서 열강과 같은 위치가 된다. 일본은 한반도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선의 독립자주국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일본은 러시아가 만주에서 영향력을 강화하자, 러시아가 한국에서 일본의 지배적 지위를 인정하는 대신, 일본이 러시아의 만주 지배를 인정한다는 만한 협상을 제안하였으나 타결되지 못하였다. 1904년 2월 일본은 인천과 귀순에 있던 러시아 군함을 공격함으로써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p>

그림 자료	설명
<p>〈그림 7〉 러·일 전쟁의 전개</p>	<p>1904.2.10. 러·일 전쟁에서 승패가 정해지지 않다가 1905.5.28. 일본이 러시아 발트 함대를 쓰시마 해협에서 무찌르면서 6.1 미국에 중재를 요청한다. 이에 1905.9.5. 러일강화조약, 즉 포츠머스 조약이 맺어져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상군사상경제상의 탁월한 이익을 가짐을 인정하게 되면서 일본은 한국을 보호국화해 거의 합병한 것이다. 일본이 러일전쟁의 승리에 뒤이은 한반도 점령과 만주 경영으로 제국주의 국가가 되면서 중국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확보되었다.</p>


3)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했을 때 한국은 왜 항의하지 않았나?

한반도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1904년 발생한 러일전쟁에 의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아무런 항의를 하지 못하였다.

그림 자료	설명
<p>〈그림 8〉 서울에 주둔한 일본군 (1904년)</p>	<p>이 때 대한 제국은 국외 중립을 선언했지만 일본에 의해 무시당하고 강제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해야만 했다.</p>
<p>〈그림 9〉 한일의정서(1904년)</p>	<p>일본은 러일전쟁을 시작하면서 한국 내정에 강제로 간섭하고 전쟁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1904.2.23. 한일의정서를 맺었다. 외교권은 외교고문의 파견으로 이미 일본 외무성에 넘어갔고, 러일전쟁 중인 1904.8. 제1차 한일협약을 성립시켰다.</p>

그림 자료	설명
 <p data-bbox="272 667 738 734">〈그림 10〉 을사늑약 당시 대안문 앞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일본군(1905년)</p>	<p data-bbox="826 405 1385 656">1905.11. 이토 히로부미를 특파 대사로 한국에 파견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는다는 제2차 한일협약을 사늑약을 강제로 조인하게 한다. 한일의정서에 기재된 '한국 영토를 보전한다.' 라는 조항은 빠졌다. 12월에 한국통감부를 설치하여 이토가 초대통감에 임명되고 각국 공사관의 철수와 해외 공관 폐쇄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단절된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다.</p>
 <p data-bbox="256 1070 754 1104">〈그림 11〉 을사늑약 체결 기념사진(1905년)</p>	<p data-bbox="826 831 1385 1014">1910.8.29. 국권 침탈이 이뤄져 한국은 일본의 소유가 되었다. 조선은 짧은 대한제국 시기를 거쳐 러일 전쟁에 의해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1910년 한국병합 후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하는 1945년까지 완전히 일본의 일부가 된다.</p>

4) 1945년 광복 후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 되었나?

그림 자료	설명
<p data-bbox="363 1256 799 1290"><b>카이로 회담 선언문 요약(Cairo Declaration)</b></p> <ul data-bbox="363 1301 810 1608"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침략 제지와 군사적 징벌</li> <li>●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장악한 태평양 모든 섬 박탈</li> <li>● 만주·대만·평호도 등 일본이 탈취한 영토 중국에 반환</li> <li>●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획득한 모든 다른 영토로부터 축출</li> <li>●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고, 적당한 절차를 거쳐 한국은 자유 독립할 것임을 결의</li> <li>●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는 데 필요한 신중하고 장기적 작전 지속</li> </ul> <p data-bbox="395 1619 778 1653">〈그림 12〉 카이로 선언문(1943년)</p>	<p data-bbox="994 1328 1390 1585">일본의 태평양전쟁에 대한 연합국의 승리가 점쳐지던 1943년, 미국·영국·중국의 정상들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모여 조선의 독립을 약속하는 '카이로 선언'을 발표한다.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취한 영토를 포기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p>
 <p data-bbox="304 2000 874 2033">〈그림 13〉 연합국 최고사령관 행정구역도(1946년)</p>	<p data-bbox="994 1686 1390 2022">'카이로 선언'은 1945년 '포츠담 선언'으로 이어졌다. 일본의 항복 이후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했으며 이를 일본 점령 기간 내내 지켰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행정구역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령으로 나타나 있다.</p>

다. 모듈별 소주제 정하기

프로젝트명은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정하며 관련 단위이나 큰 주제 안에서 모듈별로 자유롭게 소주제를 선정한다.

라. 자원 목록 소개 및 학습 계획 세우기

- 영상 : KBS(2015). 일본인의 양심선언, 독도는 한국땅이다.
- 영상 : KBS미디어(2015). 역사 증언, 우리 땅 독도 및 일본국 위안부.
- 한국 외교부 <http://dokdo.mofa.go.kr/kor/>
- 독도연구소 [http://www.nahf.or.kr/Data/board\\_100/dokdo\\_Truth/Korean.pdf](http://www.nahf.or.kr/Data/board_100/dokdo_Truth/Korean.pdf)
- 일본 외무성 <http://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index.html>



**Project Work**

**우리 국토의 영역과 독도의 중요성**

모둠: \_\_\_\_\_ 이름: \_\_\_\_\_

1. 모둠에서 탐구하고 싶은 과제:

2. 모둠 탐구 과제에 대한 질문 목록 만들기

번호	질문 목록
1	
2	
3	
4	
5	

3. 탐구 과제 해결을 위한 자료 정보

- 영상 : KBS. 일본인의 양심선언, 독도는 한국땅이다(2015. 2. 28.).
- 한국 외교부 <http://dokdo.mofa.go.kr/kor/>
- 독도연구소 [http://www.nahf.or.kr/Data/board\\_100/dokdo\\_Truth/Korean.pdf](http://www.nahf.or.kr/Data/board_100/dokdo_Truth/Korean.pdf)
- 일본 외무성 <http://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index.html>

4. 탐구 과제 결과 발표 방법:

5. 모둠과제의 탐구 및 표현 활동을 위한 학습 계획서 만들기

맡은 사람	할 일	탐구 방법

활동지  
**2**

**Project Work**

**우리 국토의 영역과 독도의 중요성**

모둠: \_\_\_\_\_ 이름: \_\_\_\_\_

1. 모둠 과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더 알아야 할 것과 그에 대한 질문을 써 봅시다.

이 탐구를 통해 알게 된 것 3가지	
내가 더 알아야 할 것 2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을 위한 질문 1가지	

2. 이번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자기평가를 해봅시다.

핵심 역량 요소		내용	점수
1	자기주도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 자율적으로 학습하였는가?	5 4 3 2 1
2	협동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과제를 해결하였는가?	5 4 3 2 1
3	문제 인식 해결 방안의 탐색	과제 해결에 필요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는가?	5 4 3 2 1
4	과제집착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 하였는가?	5 4 3 2 1
5	정보처리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는가?	5 4 3 2 1

다) 짝 토의토론 수업으로 생각 나누기

수업일시		2013.10. 23. (수) 6교시(14:00-14:40)	학년 반	5-5	지 교 도 사	안희숙
단 원		2.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자주독립	재 적	25명 (남16명, 여9명)		
주 제		우리 땅 독도				
학습목표		독도에 대한 기본지식을 익히고,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찾아 말할 수 있다.	자료	PPT자료, 독도 동영상, 사진자료, 포스트잇, 학습지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 간	자료(이)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동기 유발	<b>▣ 동기유발</b> • 다음 동식물이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 독도의 현재 모습을 볼까요? • 위의 내용으로 보아 오늘 공부할 주제는 무엇일까요?	- 산, 바닷가, 섬... - 독도 - KBS 실시간 독도 보기 시청 - 독도와 관련 된 내용	5'	1. 2.	◦ PPT 자료 ◦ 독도 동영상
	학습 문제 확인	<b>▣ 학습 문제 확인하기</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독도에 대한 기본지식을 익히고,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찾아 말하여 보자.                 </div> <b>▣ 학습 활동</b> < 활동1 > 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전체활동) < 활동2 > 독도, 한국 Vs 일본 (모둠활동)			◦ 학습문제, 활동 안내지	
전개	독도의 기본 지식 익히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lt; 활동1 &gt; 독도, 얼마나 알고 있니? (전체활동)                 </div> <b>▣ 내가 알고 있는 독도</b> •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 독도를 소중히 여긴다면 독도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생각해보자. • 독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중 한 가지를 포스트잇에 써 칠판에 붙여보자. • 우리가 알고 있는 독도 알아보기 <b>▣ 독도에 대한 기본지식 익히기</b> • 독도에 대한 기본지식을 알아보자.  • 독도에 대한 기본지식을 학습지에 정리, 기록하기	-부모님, 부모님 성함, 생신, 좋아하는 음식....  -독도의 위치, 자연, 명칭, 가치, 독도 관련 인물 등의 영역 중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생각해보기 -내가 알고 있는 독도 관련 내용 한 가지를 포스트잇에 쓰고 칠판에 붙인다. -발표내용을 정리해 보기 -위치: 동해, 울릉도에서 80여KM -자연: 화산섬, 갯벌, 강치 -명칭: 우산도, 삼봉도, 석도.. -인물: 이사부, 안용복.. -가치: 어장, 군사요지, 지하자원  -학습내용 정리, 기록	12'	◦ 포스트잇 보드마카  ◦ PPT 자료  ◦ 개인학습지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이) 및 유의점(*)
		교사	학생		
전개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 찾기	<b>&lt; 활동2 &gt; 독도, 한국 Vs 일본 (모둠활동)</b>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학습지</li> <li>◦ 포스트잇 자료</li> </ul>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 발표하기	<p><b>■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찾아 연결하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알고 있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어떤 것이 있나?</li> <li>• 일본이 독도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보자.</li> <li>• 배부한 자료 중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알맞은 근거를 찾아 학습지에 붙여보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가 알고 있는 독도 관련 일본의 주장 발표하기</li> <li>-한국은 옛날에 독도의 존재를 몰랐다.</li> <li>-일본은 옛날부터 독도를 알았다.</li> <li>-안용복의 활동은 기록에 없다.</li> <li>-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세계에 먼저 알렸다.</li> <li>-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li> <li>-배부한 자료를 읽고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알맞은 근거를 찾아 학습지에 붙인다.</li> </ul>		
정리 및 평가	정리	<p><b>■ 학습내용 정리 (짝활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극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자.</li> <li>- A: 독도는 어떤 섬이니?, B: 화산섬으로 갯이갈매기가 많아.</li> <li>- A: 일본이 먼저 독도를 세계에 알렸다는데?</li> <li>- B: 1900년 대한제국에서 먼저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알렸어.</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도 말할 수 있도록 역할극을 통해 익히도록 한다.</li> <li>◦ 개인학습지</li> <li>◦ PPT</li> </ul>
평가	평가	<p><b>■ 학습내용 평가 (짝활동, 교사관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에 대한 기본지식과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말할 수 있는지 상호평가를 해보자.</li> <li>- 짝활동을 통해 상호평가 하기</li> <li>- 교사의 질문에 답해보기</li> </ul>			
	차시 예고	<p><b>■ 마무리 및 차시 예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일본의 태도 생각해보기</li> <li>• 애국계몽운동</li> </ul>			

라) 협력학습으로 함께 하기

일시	2016. 3. 23. 2교시	대상	6학년 7 반 학생 29 명	지도교사	최명숙
단원	독도	본시 학습주제	독도는 우리 땅	차시	2/4
학습목표	○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수업모형	개념 탐구학습
창의·인성 요소	애국심, 배려, 공동체 의식, 융합적 사고				
협력학습 수업전략	○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재확인하는 활동을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방법으로 적용하여 상호 협력하고 대화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태도를 기른다. ○ 우리나라 역사를 바르게 아는 활동을 협동학습 구조 중 전시회 구조로 경청하고 모둠원이 협력하여 배움의 주체가 되는 활동을 한다.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사활동	학생활동		
문제 파악	동기 유발	<b>■ 동기 유발하기</b> ○ 독도노래 부르기 ○ 독도의 위치는 무엇인가요? ○ 독도의 주소는 무엇인가요? ○ 독도의 역사, 옛이름, 독도의 진실, 일본의 거짓된 주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1절 부르기 - 동경 131도, 북위 37 (04240)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5'	□ 독도모형도 □ 독도노래
	학습 문제 확인	<b>■ 학습 문제 확인하기</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div>			
	학습 활동 안내	<b>■ 학습 활동 안내하기</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활동1】 독도 알아보기                          【활동2】 전시회 안내 및 관람                          【활동3】 세계에 독도 알리기                     </div>			
문제 해결		<b>【활동1】 독도 알아보기 - 6개의 자료</b> ○ 독도의 위치, 옛이름, 역사, 진실, 일본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내용의 자료를 보고 자신의 생각 짝과 말하기	- 6개의 자료 중 모둠에서 하나의 자료를 선택하여 내용 파악 후 어께 짝과 질문하고 답하기 - 모둠에서 얼굴짝과 질문하고 답하기 - 안내할 내용 선정하기 - 안내할 모둠원 선정하기	8'	□ 전시물 6가지 자료 ▶ 하브루타 (짝에게 질문하기) ▶ 모둠에게 질문하고 답하기

정리 및 발전	<p><b>【활동2】 전시회 안내 및 관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듬 대표가 5모듬을 돌아다니며 설명할 때 순회 지도</li> <li>○ 모듬 대표는 전시 내용 전체 학생들 앞에서 안내</li> </ul> <p><b>【활동3】 세계에 독도 알리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시키는 활동하기</li> <li>○ 자신이 표현한 내용을 발표하기</li> </ul> <p>독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짝에게 가르쳐 주기</p>	<p>-모듬대표가 모듬별로 5모듬 돌아다니면서 독도 전시내용 설명하기</p> <p>- 각 모듬원들은 들은 내용을 간단하게 포스트잇에 정리하기</p> <p>- 각 모듬원들은 정리 확인하기</p> <p>- 포스트잇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시키는 글이나 그림, 표어, 포스터, 만화 등으로 표현하기</p> <p>- 표현한 내용 발표하기</p> <p>- 오늘 배운 독도에 관한 것을 짝에게 가르쳐 주기</p>	<p>12'</p> <p>▶ 모듬에서 안내할 내용 선정하기</p> <p>▶ 목소리 크기는 2</p> <p>▶ 모듬원들은 경청하기</p> <p>□포스트잇</p> <p>10'</p> <p>▶ 목소리 크기는 2, 3가지 서로 가르쳐주기</p>
	<p>차시 예고</p> <p>다음시간에는 일본의 거짓된 주장을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일본에게 보내는 엽서를 쓰겠습니다.</p>	<p>- 차시 학습내용 확인하기</p>	<p>5'</p>

〈전시회 학습 자료〉

					
위치	동물·식물	일본의 잘못된 독도 영유권	역사	독도의 진실	옛 이름



2016년도 독도 교원집합연수 자료집

# 독도 : 역사적 권원과 ‘실효지배’

유 미 림  
한아문화연구소 소장



# 독도: 역사적 권원과 '실효지배'

유 미 립

한아문화연구소, 소장

## 목 차

- I. 양국의 쟁점과 호칭 문제
- II. 역사적 권원
- III. 독도 개척과 실효지배
- IV. 일본의 불법 편입과 전후 처리
- V. 양국 정부의 입장 변화
- VI. 결론

## I. 양국의 쟁점과 호칭 문제

### 1. 쟁점

- 고유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
- 우산도는 독도인가?
- 안용복의 증언은 사실인가?
- 1696년 도해금지령, 1877년 태정관 지령에 '독도'가 포함되는가?
- 1905년 이전 어느 쪽이 실효지배하고 있었는가?
-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유효한가?
- 1952년 대일(對日) 평화조약,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는가?

### 2. 호칭 문제

- 우산국 : 울릉도, 우산국:울릉도 + 우산도(于山島)
- 울릉도 : 무릉도, 우릉도, 삼봉도  
죽도 : 댓섬-> 竹島, 竹嶼, 섬목->도항(島項) (島牧, 島頂), 관음도(각새섬, 藿島, 鶴島)
- 독도 : 可支(之)島, 우(于)산도, 자(子)산도, 천(千)산도, 간(干)산도, 삼봉도

- 일본 : 다케시마(竹島), 이소타케시마(磯竹島), 마쓰시마(松島)
- 울릉도 : Dagelet I. (프, 1787), Argonaut I.(영, 1789)
- 독도 : Liancourt Rocks(프, 1849), Hornet Rocks(영, 1855)  
양코 島, 랑코 島, 리양코 島(일)
- 크루젠스텐 지도(1827) 시볼트 지도(1840), 가쓰 가이슈 지도(1867)

## II. 역사적 권원

- 권원(權原, title) : original title, historic title
  - 영토를 관할할 수 있는 권원
  - 원시적 권원 또는 역사적 권원을 법에 의해 권원으로 인정될 만큼 오랜 기간 소유 - 시효나 묵인 절차에 의해 창설되거나 응고된 권원
  - 시원적 또는 역사적 권원은 다른 나라의 항의 없이, 기억할 수 없는 오래 전부터, 그 정확한 유래가 불분명한 가운데 해당 영토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

### 1. 우산도는 독도인가?

#### 가. 삼국사기-512년 조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4, ‘지증마립간 13년 6월’)

“지증왕 13년 여름 6월에 우산국이 항복하고 매년 토산물을 공물(貢物)로 바쳤다. 우산국은 溟州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라고도 한다. 땅은 사방 백리이다...”

#### 나. 고려사(1451, 권58 志12, 지리3, 동계 울진현 조)의 김유립 관련 기사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우산과 무릉은 본래 다른 섬으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했다.”

#### 다. 세종실록 지리지: 우산(于山)·무릉(武陵)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는 우산국이라 칭했으며 울릉도라고도 했다...] ..”

#### 라.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 우산도(于山島)·울릉도(鬱陵島)

“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세 봉우리가 우뚝 솟아 하늘에 닿았는데 남쪽 봉우리가 약간 낮다. 날씨가 맑으면 봉우리 위의 수목과 산 밑의 모래톱을 또렷이 볼 수 있으며 순풍이면 이들 만에 갈 수 있

다. 일설에는 우산과 울릉이 본래 한 섬으로 땅은...”

마. 팔도총도 속의 ‘우산도’ 위치

## 2. 울릉도 쟁계(안용복 사건, 다케시마 일건)

가. 안용복은 누구인가?

나. 안용복 사건과 안용복 진술의 신빙성 문제

1) 1차 피랍사건

- 1693년 봄, 49여 명이 울릉도에서 어로하다 두 사람이 피랍됨
- 호키 태수, 일본에서의 후대, 관백의 서계, 일본측 출어금지 요구

2) 2차 도일사건

- 1696년 울산에서 10명을 규합
- 안용복은 울릉도에서 만난 일본인에게 “松島本我芋山島”라고 하고, 다음날 우산도(芋山島)로 감 -> 이때의 松島, 실록의 신빙성 문제
- 요패(통정대부)와 깃발, ‘朝鮮八道之圖’ 8매 지참과 각서의 내용

다. 도해금지령이란?

1) 도해금지령이 나오게 된 경위

- 막부가 돛토리번에 조회, 7개 질문
  - “竹島는 언제부터 이나바와 호키에 속했는가?”
  - “竹島 외에 이나바와 호키에 속한 섬이 있는가?”
- 돛토리번의 회답
  - “竹島는 이나바와 호키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 “竹島와 松島(현재의 독도), 그 외에 두 지역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

2) 도해금지령(1696.1.28.)

예전에 마쓰다이라 신타로(松平新太郎)가 이나바와 호키를 지배할 때 노중(老中)에 계 문의한, 호키국 요나고의 조닌(町人)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와 오야 진키치(大谷甚吉)의 다케시마(울릉도) 도해는 지금까지는 어렵을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다케시마로 가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쇼군(將軍)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3) 안용복 사건 이후 조선의 대응

- 장한상(1694)의 조사 : “동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니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 크기는 울도(蔚島)의 3분의 1이 안 되고 거리는 300여 리에 지나지 않았습니 다....”
- 박세당의 「울릉도」 : “...두 섬이 여기에서 그다지 멀지 않아 한번 큰 바람이 불면 이 를 수 있다. 우산도(于山島)는 지세가 낮아 해기(海氣)가 아주 맑지 않거나 정상에 오 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 『강계고』 (1756), 『동국문헌비고』 (1770), 『만기요람』 (1808), 『증보문헌비고』 (1908)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鬱陵)과 우산(于山)은 모두 우산국(于山國) 땅인데, 우산은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이다’라고 하였다. ”(해석의 문제)
- 수도정책 정착, 수도 주기(間2년, 間1년), 윤희수토(삼척 영장과 월송포 만호)

4) 덴포다케시마 일건(天保竹島一件): 1833-1837년, 전국에 다케시마도해금지령<sup>4)</sup>

### 3. 일본의 영유권 부인 : 태정관 지령

#### 가. 메이지유신과 조선 정탐

- 1) 메이지유신 다음 해(1869) 쓰시마와 부산에 외무성 관리들을 파견
  - 「對州朝鮮交際取調書」의 14번째 조사 항목에 ‘다케시마 일건(竹島一件)
  -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 3인에게 13개 항목 조사를 지시
  - 보고서-「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1870)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조선에 부속하게 된 시말’에서 “마쓰시마는 다케시마 가까 이에 있는 섬(隣島)으로 마쓰시마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기록이 없다.”

#### 나. 지적 편찬사업과 내무성의 품의

- 1876년 지적(地籍) 편찬: 다케시마를 현에 포함시켜도 좋은지 내무성이 시마네 현에 문의 ->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질의(부속문서와 「이소타케시마 약도」 첨부)
- 2) 지령안(1877.3.20.)
 

“서면의, 다케시마 외 일도 건은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 3) 指令(1877.3.29.)
 

“문의한, 다케시마(竹島) 외 일도(一島) 건은 본방(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4) 1837년 “다케시마는 먼 옛날 호키국 요나고 사람들이 도해하여 어로활동을 했으나 겐로쿠기에 조선국에 건 네준 이래 도해정지를 명한 곳이다. 무릇 이국(異國)도해는 엄중히 금지된 사항이므로 향후 다케시마도 마찬가지로 점을 명심하여 도해해서는 안 된다.....”

4) '일도'는 어디인가? 「이소타케시마 약도(磯竹島略圖)」

다. 1876년부터 제출된 개척원의 다케시마, 마쓰시마의 의미

### Ⅲ. 독도 개척과 실효지배

#### 1.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내기까지

##### 가. 울릉도 개척과 이주민의 유입

1) 이규원의 조사(1882)와 울릉도 개척령

- 이명우와 고종의 밀지: 3월 16일 강원 감영, 4월 15-22일 울릉도 조사
- 이규원, 1882년 4월 10일 한성 출발, 30일 울릉도 도착, 5월 11일까지 조사
- 조선인 141명, 전라도인 다수, 일본인 78명 거주.
- 북명서와 울릉도 지도(내도, 외도): 竹島와 도항(島項) 명기, 우산도는 없음

2) 이주민

- 첫해(1883) 16가호 54명 이주, 무기와 물자 제공, 5년간 면세

##### 나. 일본인의 유입과 자원 침탈

- 규목(槻木), 콩, 전복, 우뚝가사리
- 수수료, 구전, 벌금 등의 명목으로 납세, 도감이 묵인
- 외무성은 이를 수출세라고 주장
- 1900년 6월 한일 양국 공동조사단, 제3국인 입회
- 우용정의 보고서

#### 2.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 가. 칙령

- 제2조: 울도군 구역은 울릉전도,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
- 제4조: 5등군으로 마련하되 지금은 이액(吏額)이 미비하고 모든 일이 초창기이므로 울릉도에서 수세(收稅)한 것 중에서 우선 마련할 것
- 石島의 의미: 돌섬->石島, 독섬->石島, 獨島

### 3. 울릉도 행정과 수세 관행

#### 가. 「울도군 절목(鬱島郡節目)」

“각도의 상선(商船)으로 울릉도에 와서 물고기를 잡거나 미역을 채취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10분의 1세(10%)를 거두고, 그 밖에 출입하는 화물은 물건값에 따라 물건마다 100분의 1세(1%)를 거둬 경비에 보탬 것”

(各道商船來泊本島 捕採魚藿人等處 每十分抽一收稅 外他出入貨物 從價金每百抽一 以補經費事)

#### 나. 1902년 5월 “한국 울릉도 사정” (니시무라 경부 작성)

“농업에 종사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적고, 해산물은 일본인에 의해 수출되며, 한인이 수출하는 해산물은 없다. ..울릉도 동쪽 약 50해리에 3개의 소도가 있는데 랑코 島라고 한다...다소의 전복이 있어 본도에서 출어하는 자가 있으나 음료수가 없어 4-5일이 지나면 귀향한다.”

- 해산물은 일본인 채취, 전복 등도 수출세 납부대상
- 1902년 경 한인은 약500家, 3천 명, 일본인은 약 300-500명(영구 거주자 50여 명), 어로기에 오는 사람 포함
- 일본인은 울릉도 산물(콩, 나무)을 수출, 독도 해산물도 울릉도로 가져와 일본으로 수출했다면, 이것도 수세 대상이다.

#### 다. 세금 관련 내용 변천

조사일		출처
1899.6.29. -30	농민이나 상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해채(sea-weed)에 대해 10%를 징수하고, 선박 건조에 사용된 나무에 대한 세금으로 건조된 <b>범선 1척 당</b> 평균 현금 10,000원을 징수하고, 물품 매각을 돕는 중개인과 중간상인에게 주는 <b>2%의 구문 (commission)</b> 을 제외하고 일본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리포트
1899.9.25.	본방인이 도감과 협의하여 수목을 채벌하고 대두를 매수하는 등 모두 이익 예상금의 <b>100분의 2</b> 를 세금으로 선납하여(작년까지는 100분의 5였다고 한다) 행하고 있다고 한다.	古川鈇三郎 (해군성)
1899.9.25	콩에 대해 도감이 징수하는 수출세액이 <b>100石에 대해 백분의 2</b> 의 비율로 과징된다고 한다	高雄謙三 (외무성)
1900.6.	과세는 미역세가 위주인데 미역은 <b>100원마다 5원</b> 을 세금으로 거둔다..조선세는 <b>1파마다 5냥의 세금</b> 을 거두는데..일본인에게 세금을 거두는 조목은, ..간혹 <b>벌금</b> 을 내라고 질책하고 또한 화물을 살피 <b>100에 2</b> 를 거두었는데, ...그대로 놔두고 거두지 않는 것뿐이다.	우용정
1900.6.	日人納稅冊子	김면수

조사일		출처
1900.6.12	1897-1899년간의 수출입 통계-전복 2960엔, 우뭇가사리 1200엔, 끈끈이 6000엔-모두 3만 160엔, 일본인이 가지고 온 것	아카쓰카 쇼스케
1900.9.12	수출화물을 가지고 100분의 2세를 매겨 벌금을 대신했으니..수출입세의 경우라면 어떻게 수출품에는 징세하면서 수입품에는 징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한 100분의 2를 징세하는 법이 어찌 있을 수 있는가.	외부대신 박제순
1900.10.25	울릉도에서 수세(收稅)한 것 중에서 우선 마련할 것	칙령 제41호
1901.6.15	화물 매각 시 구전 100분의 2를 관에 납입하고 목재에는 선척 당 100냥을 납부하며 공공연히 밀무역을 하고 있다.	葛生修亮, 한국연해사정
1901-1902	돗토리현에서 도항, 대두와 우뭇가사리를 수출한다.	한해통어지침
1902.4	각도 상선(商船)으로 울릉도에 와서 물고기를 잡거나 미역을 채취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10분의 1세를 거두고, 그 밖에 출입하는 화물은 물건값에 따라 물건마다 100분의 1세를 거둬 경비에 보탬 것	울도군 절목
1902.5	한인이 수출하는 품목은 콩과 호태, 보리와 황백나무 껍질, 소량의 끈끈이(黏)에 불과하고 해산물은 없다고 했다...수출입 화물은 모두 도동에 모인다.	니시무라 게이조
1902-1906	조합 유지비로 화물 주인에게서 수출세의 5/1000를 징수한다.	竹島及鬱陵島
1904.9.25	마쓰시마(울릉도)에서 해마다 어렵하러 오는 사람은 60-70石積의 일본배를 사용한다. 10일간 체재하며 많은 수확이 있다고 한다. 인원도 때때로 40, 50명을 초과하는 일도 있다...	軍艦新高戰時日誌
1905.4-6	랑코 도의 강치잡이는 1904년 경부터 울릉도민이 잡기 시작했고..모두 3조 30인이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스즈키, 울릉도 현황
	1904년: 강치수출-가죽 800관, 기름 2석 1905년: 강치수출-가죽 800관, 기름 83상자, 절임 150관	스즈키 보고서
1906.3	잡종세: 海驢漁-연 세금은 어획고의 1000분의 15를 부과한다.	시마네현령 8호

#### 4. 독도 강치에 대한 과세와 실효지배

- 수출입 비교표(1904-5): 대두, 규목, 마른전복, 강치가죽과 기름 및 찌꺼기
- 1905년: 강치수출-가죽 1275관, 기름 49석, 찌꺼기 950관
- 오징어는 주요 수출품으로 일본인 점유, 미역은 한인이 독점

#### 5. 최근 일본의 주장

- “1900년 칙령 전후로 한국이 국가로서 점유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는 국민(나카이 요자부로)의 점유 행위를 국가가 추인했다. 한국의 경우는 1900년 시점에서 국민이 이 섬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사실도 증명되어 있지 않다... 겨우 “울도군 절목」이라는 일종의 법령에 이 섬의 ‘수출입’에 대해 과금(課金)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울도군 절목」의 이야기는 다케시마에서 포획

한 강치를 울릉도에서 가공한, 이들을 섬 밖으로 ‘수출’할 때 과 금한, 즉 울릉도 상품에 대한 과금이므로 다케시마에 대한 주권 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다(일본의 경우는 다케시마에 대한 직접적인 주권행위의 예가 있다. 이를테면, 1905년의 편입 후 시마네현의 어업규칙을 개정하여 다케시마 어업을 허가제로 한 뒤에 감찰(鑑札)을 교부하여 국유지 사용료를 매년 징수했다...”

- 외무성의 논조 변화
- 『다케시마문제 백문백답』

#### IV. 일본의 불법 편입과 전후 처리

##### 1. 시마네현 고시는 합법적인가?

###### 가.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점 모색이 계기

- 러일전쟁과 외무성 정무국장의 획책

###### 나. 대하원 신청과 각의 결정

- 대하원(청원서) “리양코 섬 영토 편입 및 대하원”
- 각의 결정(1905.1.28.)

“... 1903년 이래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자가 이 섬에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해 왔다는 것은 관계 서류에 의해 명확한 만큼,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본방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여 청의한 대로 각의 결정되었음을 인정한다.”

- 훈령 제87호(1905.2.15.)
- 고시(1905.2.22.), 관보 게재, 원본 소실 문제, 사전 조회와 통고 문제
-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1904년 2월 23일

조선이 제3국의 침해나 내란으로 위협에 처할 경우 일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군사상의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2. 전후 처리

###### 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초안 작성과정

###### 나. 일본의 대응

## 다. 한국의 대응

### 라. 러스크서한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딘 러스크)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통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이 바위섬은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마네현 오키 지청 관할 하에 놓여 있었다. 한국은 이전에 결코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 이 서한은 독도문제에 대해 처분적 권능을 지니지 못한다.

### 마. 최종 조약문 (대일 평화조약 제2조 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과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미국은 평화조약 서명국 48개국의 하나이다.

## V. 양국 정부의 입장 변화

### 1. 한국 정부의 입장

#### 가.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 (2008년)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국가와의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 정부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냉철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통한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전개해나갈 것이다.

#### 나. 독도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 (2014년)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 2. 일본 정부의 입장

### 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2008)

-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 일본은 울릉도로 가는 중간 정박지 및 어장으로 다케시마를 이용하여, 적어도 17세기 중반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 일본은 17세기 말에 울릉도에의 도항은 금지했지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에는 많은 의문이 있다.
- 일본은 1905년에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켜서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 의사를 재 확인했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다케시마를 포함하도록 요청했지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하여 그 요청을 거부했다.
- 다케시마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본 영토로 취급된 것은 분명하다.
-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 나. 외무성의 홍보 전략 - 전단, 리플렛, 팸플렛(2014)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 (Japan's Consistent Position o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akeshima)
<p>*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p> <p>*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의거해 다케시마에 대해 시행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지니지 않습니다.</p> <p>*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게, 그리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p> <p>(주) 한국측은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 지배하며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 지배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p>

<p>다케시마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 (2008, 목차 안에서)</p>	<p>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 (2014)</p>
<p>*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p>	<p>*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p>
<p>* 한국측은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 지배하여 영유권을 재확인하기 이전에,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p>	<p>*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의거하여 다케시마에 대해 시행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지니지 않습니다.</p>
<p>*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p>	<p>*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게, 그리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p>
<p>*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p>	<p>(주) 한국측은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 지배하며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 지배했었음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p>

「전단」 (2쪽)의 표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다케시마 - 법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향하며- -여러분, 다케시마를 아십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합니다.</li> <li>○ 한국은 일방적으로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li> <li>○ 전후 일관되게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온 일본은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li> </ul>

「다케시마 팸플릿」 (10쪽) 첫 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p style="text-align: center;"><b>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li> <li>○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의거해 다케시마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li> <li>○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게 그리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입니다.</li> </ul>

## VI. 보론

- 표기문제 : 다케시마, 죽도, 죽서(竹嶼)
- 고지도의 증거력
- 가제, 가지어, 강치, 바다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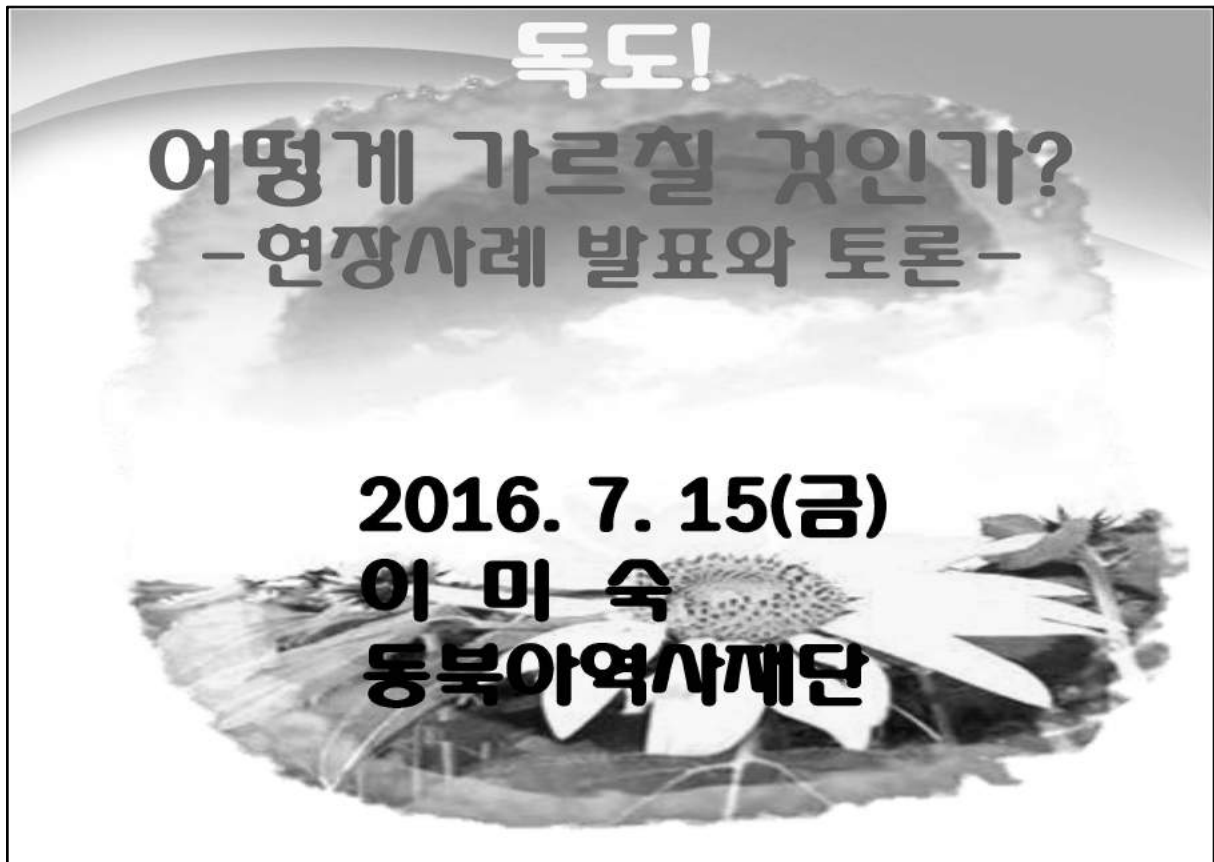


2016년도 독도 교원집합연수 자료집

# 독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중등) - 현장사례 발표와 토론


이 미 숙  
오주중학교 교사





**\* 동북아 역사 이슈(근.현대사)**

- 독도 영유권
- 일본군 위안부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 동해 표기
- 신사참배



**2013, 찾아가는 역사강좌**  
**- 독도 -**

- 일시 : 2013. 11. 8(금)
- 장소 : 부평동중학교
- 강사 : 이 미 숙
- 동북아역사재단

**2013'**  
**찾아가는 역사 강좌**

서울	방산고
대구	학남고
서울	풍남중
인천	부평동중
용인	성복중
광주	빛고을고

## \* 대한민국의 아침이 시작되는 곳~



## \* 독도 관련 홍보

- 연주소: (우편번호) 799-805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 최초 기록 문서: 삼국사기
- 독도 홍보 비용: 42억원/143억원(일본)
-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
- 2011년 중학교 교과서 일본영토 기술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10개국 번역

## \* 세 주소

### • 동도 :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부길 55 (독도 경비대)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부길 63 (독도 등대)

### • 서도 :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안용복길 3 (주민 숙소)

## \* 일본이 독도를 원하는 이유

- 경제 가치: 해양 영토 확장
- 황금 어장: 한류 + 난류
- 지하자원: 메탄하이드레이트  
(천연가스)
- 군사 및 전략적 가치
- 제국주의적 우월의식

## \*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 입장

-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에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음.

## \*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

- 일본, 옛날부터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
- 한국의 명백한 독도 인식, 고문헌과 고지도 증명
- 막부와 돛토리번, 독도를 한국땅으로 인식
-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도해 금지 조치 불필요
- 안용복 진술, 한국과 일본 문헌이 입증
- 일본, 러일전쟁 중 불법으로 독도 침탈
-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카이로와 포츠담 선언의 연장
- 미 공군, 한국정부 항의로 폭격구역에서 제외
- 독도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음

## \* 日교수 "내 양심이 말한다... 독도는 한국땅"

나이토 세이추 교수 :

"독토리번 문서 본  
이상 양심 속일 수 없었다"

• "일본정부 주장 정면  
반박했다는 점에서  
학자로서 보람 느껴"



## \* 지명 변천

우산도(512)

삼봉도(1471)

가지도(1794)

석도(1900)

독도(1906)

## \* 각국 명칭

일본 : 다케시마

프랑스 : 리앙쿠르암

영국 : 오넷

러시아 : 메렐라이 올리부차

## \* 독도 퀴즈(독도 상식 점검)

### • 외교부 독도~

<http://dokdo.mofa.go.kr/>

## \* 기록 문헌

- 독도가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 온 역사적 사실 기록물 :
-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 여지도 등

## \* 우리의 독도 영유권 확인 역사적 자료

- **돛토리번 답변서**(1696년) : 에도막부의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 금지 지시서.
- **태정관 지령**(1877년) : 메이지시대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내무성에 지시를 내려 공식 확인한 문서.

## \* 태정관시령



## \* 독도 영유권 외복 관련 국제법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카이로선언**(1943년)의 조치에 따라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로 회복됨.  
 연합국과 체결한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에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 고 했음.

**Q : A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에  
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A : 제 2조 (a)에서 "일본은 한국  
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 고 규정  
하고 있음.**

**\*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외부아자는 일본 정부의 주장?**

**- 일본 정부의 제의는 사법절차  
를 가장한 또 다른 어위의 시도  
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  
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  
이 국제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증  
명해야 한 것이다.**

## \* 우리들의 각오

-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일본 측 주장 열 가지를 모두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 일본 측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하는 일본인을 만나면 언제, 어디에서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독도는 우리의 영원한 영토임을 깨닫고, 이 영토를 지켜 내려는 굳은 의지를 가져야 한다.

## \* 독도 관련 사이트

### • 공공단체: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우리땅 독도 <http://dokdo.nori.go.kr/>
-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독도지리넷 <http://dokdo.ngii.go.kr/>
- 경북지방경찰청 독도경비대 <http://dokdo.gbpolice.go.kr/>
- 경상북도 사이버독도 <http://www.dokdo.go.kr/>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
-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http://www.ulleung.go.kr/>
- 울릉군 독도박물관 <http://www.dokdomuseum.go.kr/>
- 한국해양연구원 독도종합정보시스템 <http://www.dokdo.re.kr/>
- 해양경찰청 독도바다지킴이 <http://dokdo.kcg.go.kr/>

### • 민간 단체 :

-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http://www.prkorea.com/>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http://dokdo.yu.ac.kr/>

# ‘나라사랑 독도사랑반’



2016년도 독도지킴이학교

## 독도동아리 발대식

일시 2016년 4월 15일(금) 15:00~17:00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11층)

주최 동북아역사재단

후원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 독도 동아리 발대식



## \* 독도체험관 견학



## \* 독도의 날 행사



## \* 동아리 야영활동



## \* 뒷뜰 야영



## \* 독도는 우리의 정신입니다.







2016년도 독도 교원집합연수 자료집

# 독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박 재 홍  
성광중학교 교사



# 독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박 재 홍  
성광중학교 교사

## 1. 들어가며

최근 독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일본의 독단적인 처사로 한일관계가 계속 소원해지고 있다. 잇을 만하면 반복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은 양 국민 간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특히 독도영유권 문제는 단순한 영토분쟁이 아니라 과거사에 대한 한일양국의 역사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일 양국의 정치적 신뢰 구축과 경제협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노골적인 독도영유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독도가 단순히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 과거사 극복 과정에서 독도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독도교육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역사교육강화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독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안전교육, 다문화, 인성교육, 교실수업개선 등 크고 작은 교육현안과 정책을 추진해야하는 학교현장에서 독도교육만을 집중해서 전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독도교육은 사회과나 역사과가 중심이 되어 교과수업시간에 교과서 내용 위주로 요약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거나 창의적체험활동, 학교 행사, 동아리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물론 독도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교는 독도를 주제로 다양한 교과수업과 함께 동아리활동, 독도관련 대회 주관이나 참가를 통해 독도교육의 영역을 넓히고 학교단위에서 독도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연간 계획과 학년별 연계성, 학교급별 위계성을 가지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보다는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속에서 독도문제를 인식하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 내용과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 주장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발표자가 수행한 독도교육활동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학교급별 단위학교에서 독도교육

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가 독도교육을 하면서 놓치고 있는 점과 학생들이 독도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독도교육이 일상적인 교육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2. 독도교육 실천 사례

대구지역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타 지역보다 한일간의 독도, 일본군‘위안부’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이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다. 일단 대구사람들이 동일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직접 독도를 관할하고 있어 학생들이 지리적으로 독도를 가깝게 인식하고 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88) 할머니가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시민, 학생들과 함께 적극 활동하고 계신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는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개관되어 학생들이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를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실천하려는 자세를 갖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대구 중구 근대 골목은 일제의 침략으로 변화된 대구의 모습과 대구사람들의 삶을 전체 역사속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사탐방의 장소로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발표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특수성도 독도교육을 전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사립 남자 중·고 병설학교로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면서 교무실이 교과연구실 체제로 편제되어 있어 교과 내, 교과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일찍부터 중·고 6년 교육과정을 2년씩 3개 교육과정으로 설정하고 꾸준히 중·고 통합 교육활동을 전개한 경험이 있다. 또한 본인이 부장교사로서 교육경력과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아 국공립학교에 비해 학교차원에서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살려 발표자는 2015년도에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중·고 인문사회과 연합으로 ‘성광독도사랑연구회’를 결성하여 교육부가 주관한 독도교육실천연구회 활동을 전개하였다. 본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독도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

### 가. 독도교육의 목표

- 학교급별 연간 교육활동계획에 의거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학교행

사 등 단위 학교 교육과정안에서 독도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학생들의 학습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급별 독도교육을 실천하고 학교급간 독도교육 연계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본교와 같이 중·고 병설인 학교에서의 독도교육은 학교급별 독도교육의 중복을 피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독도교육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교과간의 벽을 넘어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독도교육과정을 재구성한 교과통합의 독도교육 모형을 구안·적용한다.

### 나. 독도교육의 개요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 독도교육의 성취기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독도 수호의 의지를 갖추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적합한 영토관과 역사관을 확립한다
교과수업과 연계한 독도교육	정규 수업	[1학년] · 자유학기제 학생선택 프로그램 운영(16차시) [3학년]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융합 독도수업	[1학년] 한국사 · 비판적 사고 학습 모형을 적용한 독도수업
	방과 후 학교	· 대상: 2학년 · 차시: 16차시(주2회 8주) · 주제: Fun Fun한 역사읽기와 오감미 즐거운 스토리텔링 한일관계사	· 대상: 1, 2학년 · 차시: 16차시 중 4차시(주1회) · 주제: 독도를 둘러싼 한일역사갈 등의 현황과 대안
체험학습과 연계한 독도교육		· 행사명: 나라사랑 독도사랑 리더쉽캠프 · 일시: 2015.7.18(목)-20(토) 2015.7.19(일)-21(화)-메르스로 취소	· 행사명: 독도지킴이 독도 탐방 · 일시 : 2015.5.17(일)-19(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독도교육		· 창의적 체험 동아리활동(반일제, 전일제) · 독도관련 행사 개최 및 대회 참가(학교축제 시 독도페스티벌 등)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독도교육		[중·고 연합 동아리 독도교육 활동] -동아리명: 우문현답(우리문화유산현장답사반) (중: 역사사지 + 고: 독도의용수비대) -나라사랑 독도사랑 캠페인(수시), 지역의 독도관련 단체 방문(반·전일제) -학교 축제시 독도바로알기 교실 및 활동 결과물 전시회(10·11월) -지역의 시민단체 및 관련 기관과 연대활동 (영남대독도연구소,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 등)	

## 다. 독도교육의 내용

### 교과수업과 연계한 독도 수업실천

- 방침 : 학생활동중심 수업실천을 통해 독도의 역사와 중요성, 올바른 국토관·국가관 정립
- 방법 : 학교급별,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독도수업 실천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수업	[1학년] · 자유학기제 학생선택 프로그램 운영(16차시) [3학년]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융합 독도수업	[1학년] 한국사 · 비판적 사고 학습모형을 적용한 독도수업
방과 후 학교	· 대상: 2학년 · 차시: 16차시(주2회 8주) · 주제: Fun Fun한 역사읽기와 오감이 즐거운 스토리텔링 한일관계사	· 대상: 1, 2학년 · 차시: 16차시 중 4차시(주1회) · 주제: 독도를 둘러싼 한일역사갈등의 현황과 대안

#### ○ 수업실천 사례(중학교)

- 1학년 - 자유학기제 / 2학년 - 방과 후 보충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소개	수업시수 (주당)
1학년 독도야 놀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면서 주권 수호의지를 강화하고, 학생 중심의 체험 및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내면화한다.	16(2)
2학년 Fun Fun한 역사읽기와 오감이 즐거운 스토리텔링 한일관계사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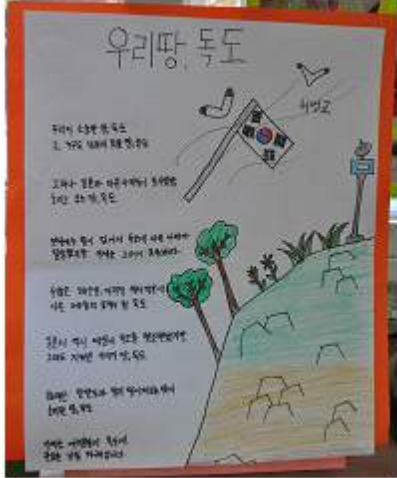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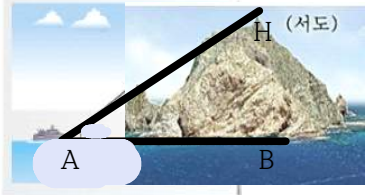
성취기준	성취수준	
역9215. 일제에 의해 독도가 불법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상	일제에 의해 독도가 불법으로 편입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할 수 있고, 각 산출물을 제작하여 독도의 중요성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설명하고 발전적인 산출물에 대해 발표할 수 있다.
	중	일제에 의해 독도가 불법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각 산출물을 제작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하	일제에 의해 독도가 불법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고 간단한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다.

차시	교육활동 주제	교육활동 내용
1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독도와 관련되어 생각나는 것을 마인드 맵으로 표현해보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
2	독도의 위치와 영역, 자연 환경과 가치	독도의 형성, 독도의 지형, 독도의 기후, 독도 생태계(동물, 식물)의 특징, 독도 생태계(어류)의 특징, 독도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3	고문헌 및 근대 이후 자료에 나타난 우리 영토로서의 독도	삼국시대~조선 시대의 문헌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를 모둠별로 정리하고, 근대 이후 독도가 수록된 자료에 대한 사료학습을 한다.
4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	조선 전기 지도와 조선 후기 지도, 서양 고지에 나타난 독도를 확인한다.
5~6	독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독도가 한반도에 편입된 역사와 근대 이전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업적,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상과 성격을 찾아본다.
7	일본 고문헌과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	일본 고문헌과 고지도에서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
8~9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비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내용(일본 외무성의 왜곡된 10가지 주장)과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반박문을 쓰고 발표한다.
10~11	독도 모형 만들기	독도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독도 모형을 만들고, 독도 모형에 나타난 독도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11~12	독도신문 만들기	동북아역사재단의 『중학생 독도 교수학습 과정안 및 학습지 (독도 부교재 활용)』를 활용하여 독도신문을 제작한다.
13~14	북아트로 배우는 우리 영토 '독도'	학생들 스스로 자르고 붙이는 재미있는 체험제작활동을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와 독도의 역사, 가치, 자연 등을 학습하고 독도사랑 의식을 함양한다
14~16	독도사랑 홍보물 만들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확고한 근거와 신념을 심어주고 독도의 소중함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한다.

■ 3학년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융합 독도수업

교과목	국어	과학	수학	역사	사회	영어	가정
성취기준	2939. 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글을 효과적으로 쓴다.	과9205. 여러 가지 생물을 분류의 목적과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수95092. 삼각비를 활용하여 다양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역224.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주변 국가와의 역사 갈등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	사92133.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 간 갈등 문제(예: 독도 문제, 동북공정)를 파악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영중9234.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신문, 그림, 도표 등의 자료를 설명할 수 있다.	가9153-2.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자세를 가진 주생활 양식을 알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단원	3. 효과적인 읽기와 쓰기	6. 유전과 진화	6. 삼각비	3. 대한민국의 발전	2. 국제 사회의 경쟁과 갈등 및 공존	8. Product Placement	3. 지속가능한 주생활
수업 내용 및 방법	매체의 특성을 알고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여 '독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다양한 글쓰기	독도의 다양한 생물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류하여 발표하기	독도의 해도를 삼각비 이용하여 구하기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설명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롯한 주변 국가와의 역사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발표하기.	독도 문제 관련 우리나라 대응방침, 일본의 전략, 미국의 태도 등 발표하기	독도에 관한 영어 광고를 제작하여 친구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독도가 주거환경으로 적합한지 알아보기
수업 시기	11월 1주 (2차시)	11월 1주 (2차시)	10월 5주 (2차시)	10월 5주 (2차시)	10월 5주 (2차시)	10월 5주 (1차시)	10월 5주 (2차시)
수업 결과물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독도' 관련 글쓰기 학습지	독도 생물지도 및 티셔츠	독도 섬 높이 구하기 (학습지)	독도만화그리기 독도알림판 제작	독도 분쟁에 대한 학생 활동지	독도 영어광고 우드락	주택모형
평가 방법 및 내용	수행평가	수행평가	수행평가	수행평가	수행평가	.	수행평가
통합 활동	세계 각국에 우리 땅 독도 소개 활동(sns, 트위터 등)						

**타교과와 연계한 독도교육 클라보**

<p>기술·가정(독도UCC)</p>	<p>국어(백일장)</p>	<p>미술(독도 포스터)</p>
 <p>독도가 얼마나 중요(소중)한데..</p>		
<p>과학(독도 양초만들기)</p>	<p>사회(독도만화그리기)</p>	<p>수학(독도 섬 높이 구하기)</p>
		

**동아리활동과 연계한 독도교육**

<p>캠페인 활동(교내)</p>	<p>캠페인 활동(교외)</p>	<p>독도홍보물 제작</p>
		
<p>독도사랑 자작시 전시회</p>	<p>독도자료전시회</p>	<p>위안부할머니와 연대 활동</p>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독도교육**

○ 창의적 체험 동아리활동(반일제)

독도티셔츠 만들기	독도독서대 만들기	한중일 역사분쟁 입체북 제작
		
한지를 활용한 독도 전통책 만들기	제3회 창의체험동아리축제참가	영남대 독도연구소 탐방
		

○ 독도관련 행사 개최 및 대회 참가

독도관련 대회 참가			
구분	중	고	
행사명	교내 독도사랑 글짓기 및 제6회 나라(독도)사랑 글짓기 국제 대회 참가	교내 독도 사랑 자작시 쓰기 및 2015 독도의용수비대 정신 계승 독도사랑 시 공모전 참가	
일시 및 대상	2015. 4. 15 / 전교생	2015. 5. 18-26 / 1, 2학년	
내용	교내 대회 입상작 8편을 '제6회 나라(독도)사랑 글짓기 국제 대회'에 출품 	교내 대회 입상작 10편을 '2015 독도의용수비대 정신 계승 및 독도 사랑 시 공모전'에 출품 	
결과	대구광역시장상 수상(3학년 하*범)	해상수산부장관상 수상(1학년 심*우)	
독도관련 대회 개최			
구분	중		고
행사명	나라사랑 독도사랑 골든벨	교내 디베이트 대회	교내 인문사회탐구 논문대회
일시 및 대상	2015.10.30/전교생	2015.12.2/전교생	2015년 9월/전교생

○ 학교행사와 연계한 독도 교육 활동

고등학교 독도페스티벌(11월 19일~20일, 대구시내 및 2·28민주공원 일대)



중학교 독도페스티벌(11월 30일, 교내 / 대구종합유통단지)



독도자료전시회

교과융합 독도수업 결과물 전시

독도티셔츠 전시회

독도사랑 골든벨

독도 스피드 퀴즈

독도 사물놀이 공연

**체험학습과 연계한 독도교육**

구분	중	고	
행사명	나라사랑 독도사랑 리더쉽캠프	독도지킴이반 동아리 독도 탐방	
일시	2013. 7. 19(일) - 21(화)	2015. 5. 17(일) - 19(화)	
참가인원	인솔교사 3명 외 34명	김*규 외 16명, 인솔교사 2명	
체험 내용	메르스 영향으로 행사취소	울릉도 독도박물관 및 향토사료관, 안용복기념관 관람, 독도탐방, 나리분지 견학	

## 라. 독도교육 실천 결과

### ○ 학교급에 맞는 독도교육 실천 방안 모색

독도교육은 중·고 학교교육계획 및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정규수업, 방과후 보충, 창의적체험활동, 체험학습 시간을 활용하였다. 특히 교과수업의 경우, 중학교는 학년별 교육과정에 맞게 1학년은 자유학기제, 2학년은 방과후 보충, 3학년은 독도관련 교과 및 타교과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독도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대학입시와 수요자 중심 방과후 보충에서 독도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므로 정규수업에서 독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창의적체험활동, 동아리활동, 체험학습 등을 활용하여 독도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학교급별 독도교육을 실천하고 중·고 병설인 본교의 특성을 살려 중·고 동아리 연합으로 독도 홍보물 제작, 교내외 독도 캠페인 활동, 독도자료 전시회,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의 연대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이는 학교급간 독도교육연계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 및 동아리활동과 함께 전교생을 대상으로 미니독도골든벨, 교내 독도사랑 글짓기 및 자작시 쓰기, 독도 디베이트 대회, 인문사회탐구 논문대회, 독도 포스터그리기 등을 개최하여 우수작은 교내 전시회를 하고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자극하여 독도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고 표현해보는 능력을 길러주어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계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 교과융합형 접근이 가능한 창의적 독도 교수학습 자료 개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성취기준과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교과융합으로 독도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수-학습방법에서 탈피하여 교과의 특성을 살려 독도관련 글쓰기, 독도 만화그리기, 독도 영어광고 만들기, 독도에 적합한 주택모형 설계 등 학생활동 중심으로 독도수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독도를 보다 친숙하게 느끼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독도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게 하였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 단계 및 수준에 맞는 독도교육을 전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적 경험과 함께 통합적 사고를 길러주어 독도를 현재의 우리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역사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이다.

## ○ 지역사회와 학교 간 정보 공유

독도 문제와 같이 현재에도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함으로써 그 문제를 몸으로 느낄 수 있고, 현재의 활동이 미래의 역사를 개척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독도관련 시민단체가 학교현장에서 독도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함께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독도교육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독도교육은 담당교사의 의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대부분 교과와 교과외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교과외 시간을 활용한 독도교육은 캠페인, 대회 개최, 문예 행사, 체험학습 등 단위 학교의 상황과 교육대상,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교실에서의 독도수업은 생각만큼 녹록치가 않다. 일단 물리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교육과정에 편성된 수업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방과후 보충은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학력신장과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강좌와 내용은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리적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관점에서 독도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내용으로 독도를 가르칠까라는 점이다. 현재 독도수업실천사례를 보면 <표>와 같이 대부분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것과 일본의 주장에 반박하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학교급	학습 목표
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최근 쟁점들을 이해한다.</li> <li>○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분명하게 이해한다.</li> <li>○ 독도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이해한다.</li> </ul>
중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를 한자로 쓰고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li> <li>○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li> <li>○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문을 적을 수 있다.</li> </ul>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근거를 이해할 수 있다.</li> <li>○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파악할 수 있다.</li> <li>○ 독도 영유권 분쟁의 원인과 올바른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li> <li>○ 독도문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한다.</li> </ul>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주장은 독도에 대한 주권과 영토의식 함양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근대 제국주의 질서하에서 일본이 당시의 영토나 해양법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자기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나 당시에는

바다, 해양주권, 어업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일본이 러·일전쟁 중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할 때도 대한제국은 이에 대해 정당한 항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은 당시에 우리나라와 맺은 모든 조약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었고 ‘조선국 교제시말 내담서’나 ‘태정관 지령’ 등 일본측의 자료에서 독도를 한국땅으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일본이 합법적으로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했다고 하면 논리적, 법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독도교육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이전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까지 학생들에게 언급이 되어야 하지만 교과서나 독도교재에는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모두 자국에게 유리한 주장만 가르치고 있을 뿐 불리한 점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학교에서의 독도교육은 ‘독도문제=일본의 영유권 주장’이라는 전제하에 ‘독도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우리 땅’이라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논리적으로 독도문제를 인식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하기 보다는 일본은 억지 주장만을 일삼고 있는 나쁜 나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웃 나라라는 인식을 키우고 있다.

그러므로 독도수업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라는 주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학생들에게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의도나 국제사회에서의 힘의 논리 등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우리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나가고 대응해나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수업으로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 ①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땅이라는 역사적 소유권의 정당성
- ② 일본의 침략의 시작으로 독도를 보고 독립을 독도의 회복으로 보는 것
- ③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토주권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가?

②는 독도문제를 일제 식민지배의 영향이라는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면서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시작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1910년에 조선전체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켰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한 독립이라고 하면 독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일본이 독도를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이고 식민지배를 연장하겠다는 것과 또 다시 우리나라를 침략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임을 추론하게 하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의도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명확히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③은 독도를 국제외교의 문제와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약소 국가들은 강대국에 의해 언제든지 합리적인 논리와 역사성에 관계없이 침탈당하거나 또는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도교육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를 알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하며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논리를 갖게 만들어주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2016년도 독도 교원집합연수 자료집

# 독도의 지리적 해석

전 영 권  
대구가톨릭대학교



# 독도의 지리적 해석

전 영 권

대구가톨릭대학교

## 1. 독도의 현황

### 1) 독도의 위치와 접근성

한 지역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로 구분할 수 있다.

#### (1) 독도의 지리적 위치

독도는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47.2해리)에 위치한다. 육지부에서 독도까지 최단거리에 위치하는 곳은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으로 독도는 죽변에서 동쪽으로 216.8km(117.1해리)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 (2) 독도의 수리적 위치

수리적 위치는 경선과 위선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독도를 구성하는 두 개의 큰 섬 중 하나인 동도의 수리적 위치는 북위 37° 14' 26.8", 동경 131° 52' 10.4"이며, 또 다른 큰 섬인 서도의 수리적 위치는 북위 37° 14' 30.6", 동경 131° 51' 54.6"이다.

독도와 동일한 위도 상에 위치하는 주요 지역으로는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여주군, 강원도 영월군 주천, 강원도 삼척시 응봉산 등이 있다.

#### (3) 접근성과 교통

우리나라 육지에서 또는 울릉도에서 독도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로서는 선박 교통이 유일하다. 우선 육지에서 독도로 이어지는 뱃길은 반드시 울릉도를 경유하여야 한다.

육지에서 울릉도로 이어지는 해상교통의 경우, 울릉도-포항 간 217km, 울릉도-후포 간 159km, 울릉도-묵호 간 161km, 울릉도-강릉 간 178km이다. 그러나 교통편은 없지만 육지에서 울릉도까지의 최단거리는 울릉도-울진군 죽변 간으로 130.3km에 불과하다.

포항 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 도동항까지는 3시간 20분이 소요되며, 후포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울릉도 저동항까지는 2시간 10분, 묵호여객터미널에서 울릉도 도동항까지는 2시간 40분, 강릉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울릉도 저동항까지는 3시간 정도 소요된다. 특

히 독도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울릉도를 거쳐야 하며 보통 울릉도 저동항과 도동항에서 독도까지 왕복 시간(편도 1시간 20분)은 대체로 3시간 30분에서 4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울릉도-독도 간 배편이 매일 있어 멀리 떨어져 있다고만 느끼는 독도로의 접근성은 의외로 편리하다.

한편 일본의 경우 독도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섬은 시마네현(도근현, 島根縣) 오키노시마(은기도, 隱岐島)다. 오키노시마는 독도에서 남동쪽으로 157.5km(85.0해리)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어느 문헌에서도 일본의 오키노시마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관측했다는 기록은 볼 수 없다.

표 1. 한국 및 일본으로부터 독도까지의 최단거리

기 점	독도와 최단거리	비 고
울릉도	87.4km(47.2해리)	울릉도와 독도는 서로 조망이 가능하나, 일본 오키노시마에서는 조망이 불가능.
울진군 죽변	216.8km(117.1해리)	
은기도(隱岐島; 오키노시마)	157.5km(85.0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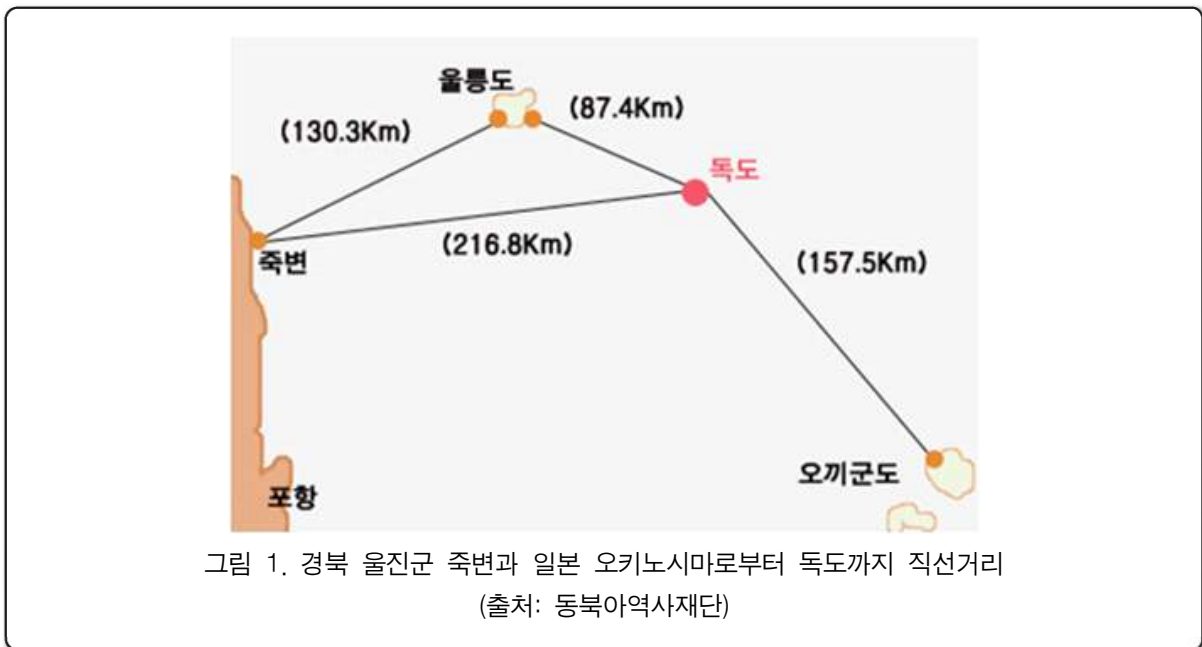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맑은 날씨일 때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조망할 수 있고, 또한, 조선시대의 '세종실록지리지'에도 날씨가 아주 맑을 때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서로 바라다 보였다는 기록도 있다.



그림 2. 울릉도 석포마을에서 촬영한 독도(출처: 동북아역사재단)

## 2) 독도의 행정구역

독도는 동도와 서도 2개의 주 섬을 비롯해 주변의 89개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 소유의 국유지로 지적 현황은 101필지에 지목이 임야와 대지 그리고 잡종지로 분류되어 있다.

2000년 이전까지 울릉군 도동리 산42~76번지로 편제되어 있다가 2000년 독도리 산1~37번지(서도-1반, 동도-2반)으로 행정구역 명칭과 지번이 변경되었다. 2005년에는 지번이 독도리 산1번지~37번지에서 독도리 1번지~96번지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울릉도와 함께 주로 강원도에 속해 있었다. 1900년(광무 4년)에는 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편제하고 울도군수가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관할토록 하여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를 명확하게 하였다. 그 후 1914년에는 경상북도 관할로 편제되었다. 1997년 11월에 완공된 독도접안시설의 경우 1998년 8월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 2003년 1월 1일에는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독도에 '799-805'의 우편 번호를 부여하여 서신 왕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 3) 독도의 규모와 시설물

### (1) 크기와 면적, 형상

독도는 동도와 서도 2개의 주 섬과 그 주변의 89개에 달하는 작은 섬과 암초를 모두 포함하며, 총 면적이 187,554㎡에 달한다(54,723평). 이 중에서 동도의 면적은 73,297㎡, 서도

의 면적은 88,740m<sup>2</sup>에 이른다.

독도의 주 섬 중 하나인 동도는 해발고도가 98.6m, 둘레가 2.8km이고 서도는 해발고도가 168.5m, 둘레가 2.6km이다.

동도와 서도 간 가장 가까운 거리는 151m이다. 그러나 동도와 서도 사이에는 미역바위와 촛대바위(장군바위) 등의 바위섬을 비롯해 작은 바위섬과 암초들이 분포하고 있어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그림 3. 독도 전도(출처: 국토지리정보원, 2007)

독도 주변의 작은 섬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바위섬은 주로 서도 주변에 분포한다. 서도 북쪽의 큰가제바위, 서쪽의 군함바위와 넓덕바위, 동도와 서도 사이(서도의 동북쪽)에 있는 삼형제굴바위가 대표적이다.

동도의 동쪽 끝부분에는 깊이가 100m 정도 되는 함몰 화지가 있는데, 바다로 연결되어 있어 바닷물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동굴(천장굴) 두개가 있어 바닷물이 이곳에 고여 있어 호수 같아 보인다. 경사면에는 국지적으로 20~30cm 두께의 토층이 발달하여 식생이 자라기에 좋다. 서도는 최정상부가 뾰족한 원뿔형을 나타내 보인다. 독도에서 가장 높고 경사가 가파른 하나의 봉우리로 되어있다. 바닷가의 해식애에는 다양하고도 많은 동굴이 발달하고 있어 흥미로운 경관을 연출한다.

## (2) 독도의 시설물

동도에는 군사시설인 경비대 초소, 막사, 유인 등대, 접안 시설, 영토 표석, 조난 어민 위령비 등이 있다.

서도에는 민간시설인 어민 숙소와 서도 중간 분지(북서쪽 해안)의 물골이라 불리는 곳에 식수로 사용하는 샘이 있다. 물골 바위틈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물은 하루 한 드럼 정도의 분량으로 독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데 소중한 수원으로 중요하다.



그림 4. 서도에 있는 물골(출처: 동북아역사재단)

## 4) 주민 현황

독도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람은 최종덕씨로 주소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0(구 도동리 67)번지에 해당한다. 그는 1965년 3월에 울릉도 주민으로 도동어촌계 1종 공동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1968년 5월에 시설물 건립에 착수했다. 그 후 1981년 10월 14일 독도를 주소지로 주민등록에 등재했고, 1987년 9월 23일 사망할 때까지 독도에 거주하였다.

그 뒤 최종덕씨의 사위 조준기씨가 1987년 7월 8일 같은 주소지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1년 2월 9일 울릉읍 독도리 20(구 도동리 산 63)번지로 전입하였다. 그는 1994년 3월 31일 전출하였다.

지금은 1991년 11월 17일 이래 김성도·김신열씨 부부 1가구 2명이 울릉읍 독도리 20(구 도동리 산63)번지에서 어로활동에 종사하며 거주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주민들 외에도 같은 주소지(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20)에 거주하였던 주민들과 그들의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최종찬(1991년 6월 21일~1993년 6월 7일)
- (2) 김병권(1993년 1월 6일~1994년 11월 7일)
- (3) 황성운(1993년 1월 7일~1994년 12월 26일)
- (4) 전상보(1994년 10월 4일~1994년 12월 18일)

## 5) 독도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한 문화재보호법 내용을 요약하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보물·국가유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 중에서 그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지정·등록 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인근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정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 (1) 독도천연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되고 있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독도일원) 소재인 독도는 동도·서도 두개의 주 섬을 위시하여 인근에 분포하는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된다.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동해안 지역에서 바다제비, 습새, 갯가래기들의 큰 집단이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2년 11월 16일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돼 관리·보호되어 왔다. 그러던 중, 독도에 서식하는 독특한 식물과 기묘한 화산지질·지형적 경관 그리고 섬 주변의 특이한 바다생물종 서식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1999년 12월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2) 천연기념물 제538호 독도 사철나무

독도는 신라 제22대 지증왕(재위 500~514) 이래 우리의 영토로서 역사성과 더불어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큰 섬이다. 특히 2012년 10월 5일 천연기념물 제538호로 지정돼 관리 중인 ‘독도 사철나무’ 1그루는 생물과학기념물을 대표하는 가치를 지닌다. 본 사철나무는 독도에서 현존하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된 나무로 독도에서 생육하는 대표적인 수종일 뿐만 아니라, 국토의 동단 독도를 100년 이상 지켜왔다는 영토적·상징적 가치도 매우 크다.

## 6)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연혁

### (1) 고문헌 속의 울릉도와 독도

청동기시대(기원전 1000~300년) 또는 철기시대 전기 (300년~1년)에 울릉도에 최초로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의 유물 또는 유적으로 판단되는 지석묘, 무문토기, 갈돌, 갈판 등이 현포, 남서, 저동리 등지에서 발굴되었다.

(2) 진나라 진수가 지은 『삼국지』 위지동이전 ‘옥저조’의 고구려 동천왕 20년(246년)에 관한 기록

#### 〈관련 사료〉

“병사들이 옥저 노인들에게 바다 동쪽에도 사람이 사는지 물었다. 노인들이 답하기를 일찍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던 중, 풍랑을 만나 수십 일간 표류하다가 동쪽의 한 섬에 당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곳의 풍속은 매년 7월에 여자 아이를 선택해서 바다로 던진다. 또 전해 오는 말로는 바다 한 가운데 나라가 있는데, 모두 여자만 살고 있다. 배운 한 벌이 바다로부터 떠내려 왔는데, 중국의 옷과 닮았다. 양 소매 길이는 3장(丈)에 달했다. 난파선 한 척이 파도에 떠밀려 해안가에 닿아 배 안을 살펴보니 배 안에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목에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었다. 그를 생포하였으나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는 음식을 먹지 않아 얼마 후에 죽었다. 이상에서 말한 일들이 일어난 지역은 모두 옥저 동쪽 큰 바다 한가운데 있다.”

(3)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에 보면 512년(지증왕 13년)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고문헌에 등장하는 최초의 울릉도 기록이다.

#### 〈관련 사료〉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6월 우산국(于山國)이 귀복(歸服)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바치기로 하였다. 우산국은 명주(강릉)의 정동 쪽 바다 한가운데 섬에 있고 울릉도라고도 한다. 땅이 사방 100리에 달하나 가기가 험한 곳이라 신라에 귀복치 아니하였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강릉)의 군주가 되어 생각하기를 우산국 사람은 어리석고도 사나워 위세로써 굴복시키기는 어려우니 계책을 써서 항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목우사자(木偶獅子)를 많이 만들어 배에 나누어 싣고 우산국 해안에 이르러 말하였다. 너희들이 만일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맹수를 풀어 뱉아 죽이게 하겠다고 하니 그들은 두려워 곧 항복했다.”

이처럼 역사적 기록을 통해 볼 때 울릉도 원주민은 육지와 멀리 떨어져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지리적 환경 탓에 용맹스러우면서도 순진한 면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 (4) 울릉도와 독도 연혁

930년(고려 태조 13년) : 조공한 우릉도(芋陵島)주민에게 작위 하사

1018년(현종 9년) : 여진족의 침입을 받고 농업을 폐하게 되어 이원구를 보내어 농기구를 하사하였다.

1032년(덕종 원년) : 우릉성주가 고려에 아들을 보내어 조공했다.

1157년(의종 11년) : 우릉도 주민을 이주시킬 계획으로 명주도 감창사 김유립을 보내 조사케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1379년(우왕 15년) : 왜구가 무릉도(武陵島) 주민들을 본토로 귀환케 하였다.

1417년(조선 태종 17년) : 김인우를 안무사로 파견하여 주민들을 귀환시켰다.

1614년(광해군 6년) : 대마도주에게 울릉도(鬱陵島)에 왜인들의 왕래를 금지하는 금약을 준수하라는 서계를 보냈다.

1693년(숙종19년) : 울릉도에서 안용복 일행과 일본 어부들의 충돌로 조선과 일본사이 외교분쟁이 발생하였다. 이때 안용복이 첫 번째 일본으로 건너가 항의하였다.

1694년(숙종 20년) : 삼척첨사 장한상 울릉도 수토

1696년(숙종 22년) : 안용복이 두 번째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백기주(伯耆州) 태수와 담판을 하여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케 하였다. 결국 일본인이 출어 및 벌채를 하지 않겠다는 '금지서계'를 우리 조선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1882년(고종 19년) : 이규원 검찰사가 울릉도를 검찰하여, 울릉도 개척령 반포, 전석규 도장에 임명했다(수토정책 철회).

1883년: 울릉도에 주민을 이주하기 시작하였다(16호 54명).

1895년(고종 32년) : 삼척영장 겸임 도장제에서 전임도장을 임명하고 도장을 도감으로 개칭하였다.

1900년(대한제국 광무 4년) :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면서 강원도에 편입하고 행정구역은 남면과 북면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도감의 직책을 군수로 변경하였다.

1903년(광무 7년) : 군청소재지를 태하에서 도동으로 이전하였다.

1906년(광무 10년) : 울도군을 경상남도에 편입하였다가 1914년에는 울릉도를 경상남도에서 경상북도로 이속하였다.

1915년 : 군(郡)제를 폐지하고 제주도와 더불어 도(島)제로 변경하여, 울도군청(鬱島郡廳)을 울릉도청(鬱陵島廳)으로, 군수(郡守)를 도사(島司)로 개편하여 행정과 치안을 총괄토록 하였다.

1949년 : 울릉군으로 환원돼 경상북도 울릉군이 되었다.

1979년 5월 1일 : 남면이 울릉읍으로 승격되었고, 현재의 1읍2면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1991년 4월 15일 : 지방자치제시행으로 울릉군의회가 개원하였다.

1995년 7월 1일 : 민선자치 단체장이 취임하였다.

2000년 4월 7일 :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를 신설하였다.

## 2. 고지도에 나타난 울릉도와 우산도



1402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1402년



16세기 조선전도



1530년 팔도총도



1673년 조선팔도고금총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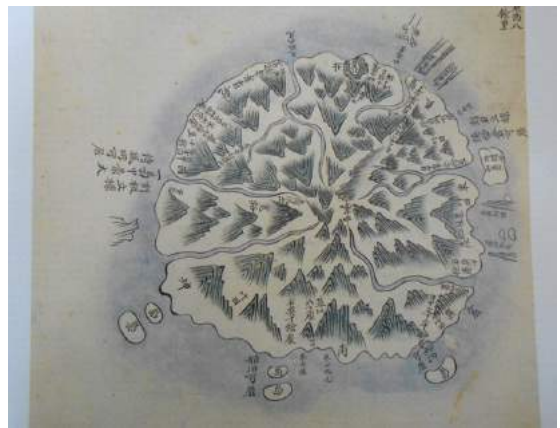
17세기 후기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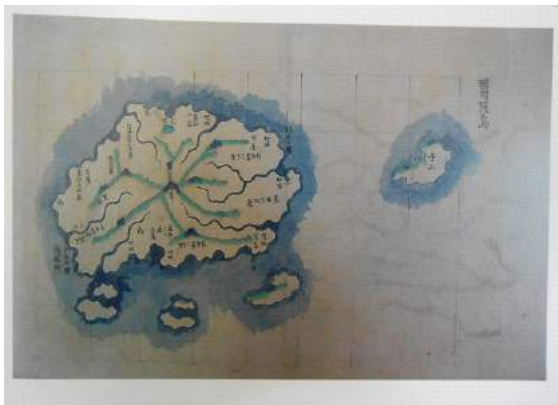
18세기 전기 천하대총일람지도



18세기 중기 여지도 울릉도도



18세기 중기 울릉도(첩 해동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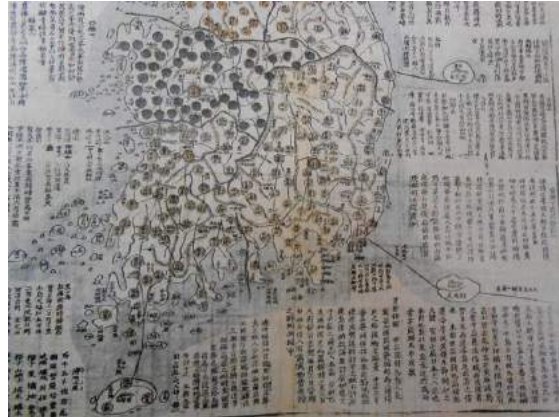
18세기 중기 팔도지도 강원도 울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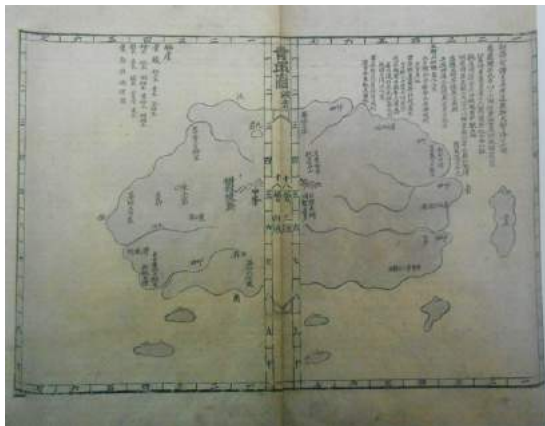
18세기 후기 여지도 아국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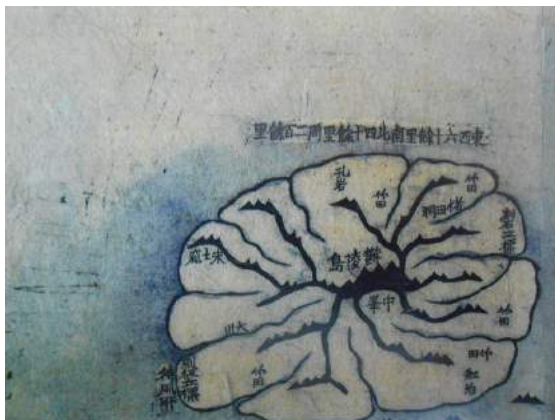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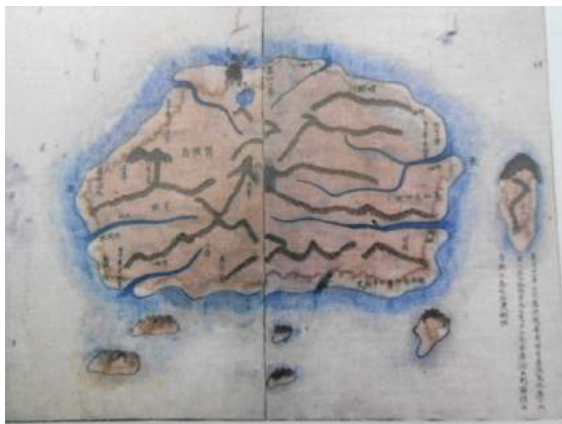
19세기 초기 조선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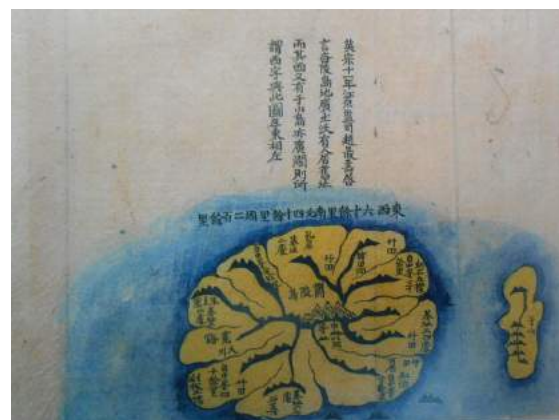
19세기 전기 해좌전도



1834년 김정호 청구도 울릉도-우산도



1861년 김정호 대동여지도 울릉도



19세기 후기 대동여지도(수정본) 울릉도-우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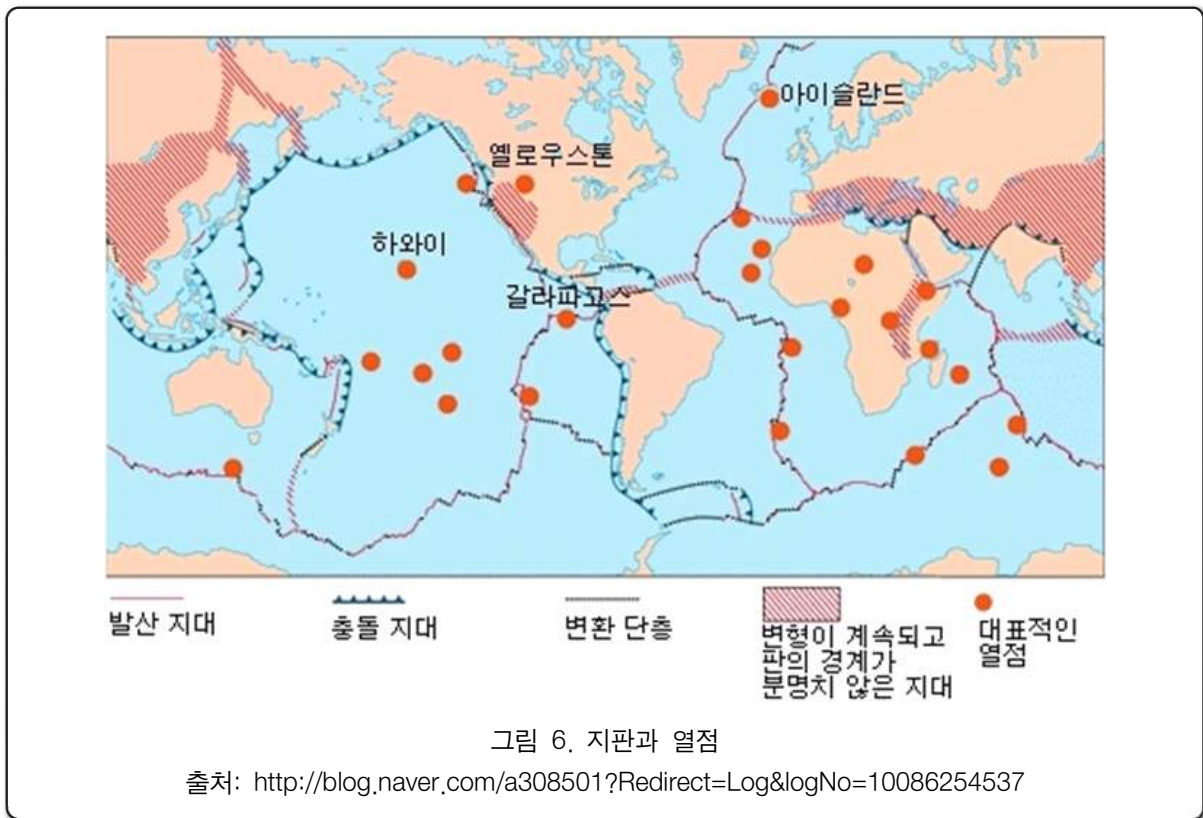
그림 5. 고지도(출처: 동북아역사재단, 이찬, 1991)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울릉도와 독도

- 1) 조선 초기 정부는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전국적인 지리지 편찬
- 2) 〈신찬팔도지리지, 1432년〉 보완,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완성
- 3) 여기에 울릉도와 우산도 관련 기록 존재
  - 우산, 무릉(于山武陵) 두 섬이 울진현 정동쪽 바다에 있다.
  -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다.
  -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칭했으며, 울릉도라고도 했다.

### 3. 독도의 형성과 자연환경

#### 1) 독도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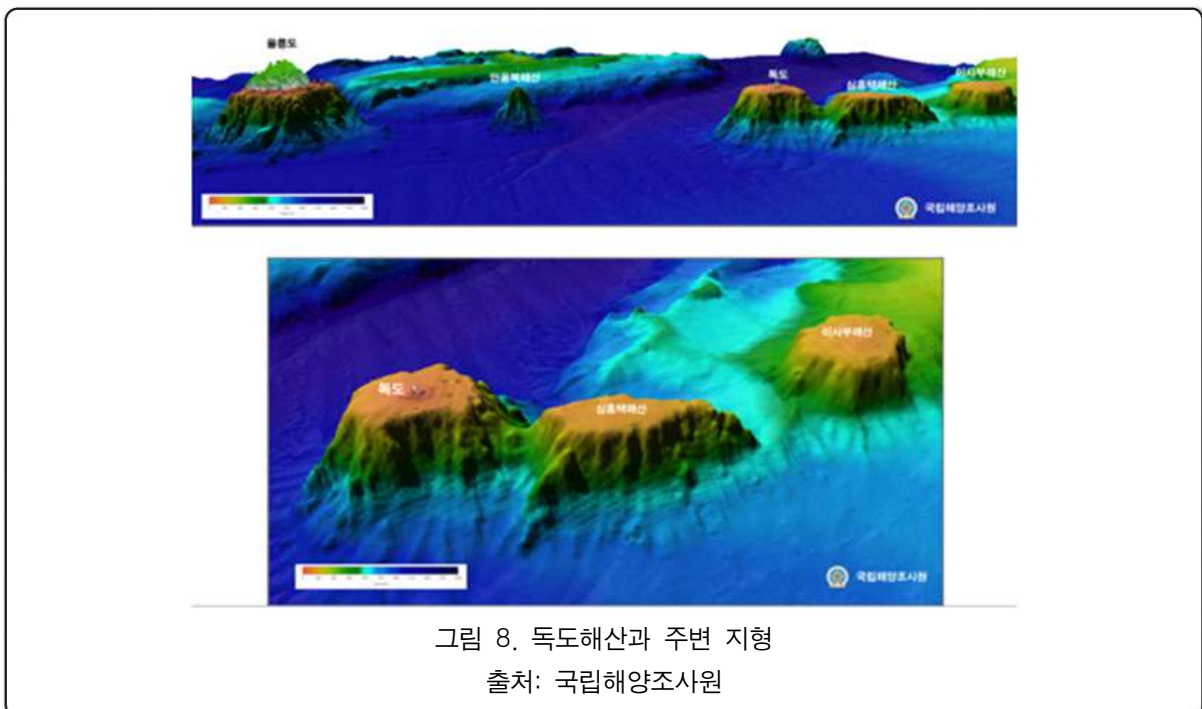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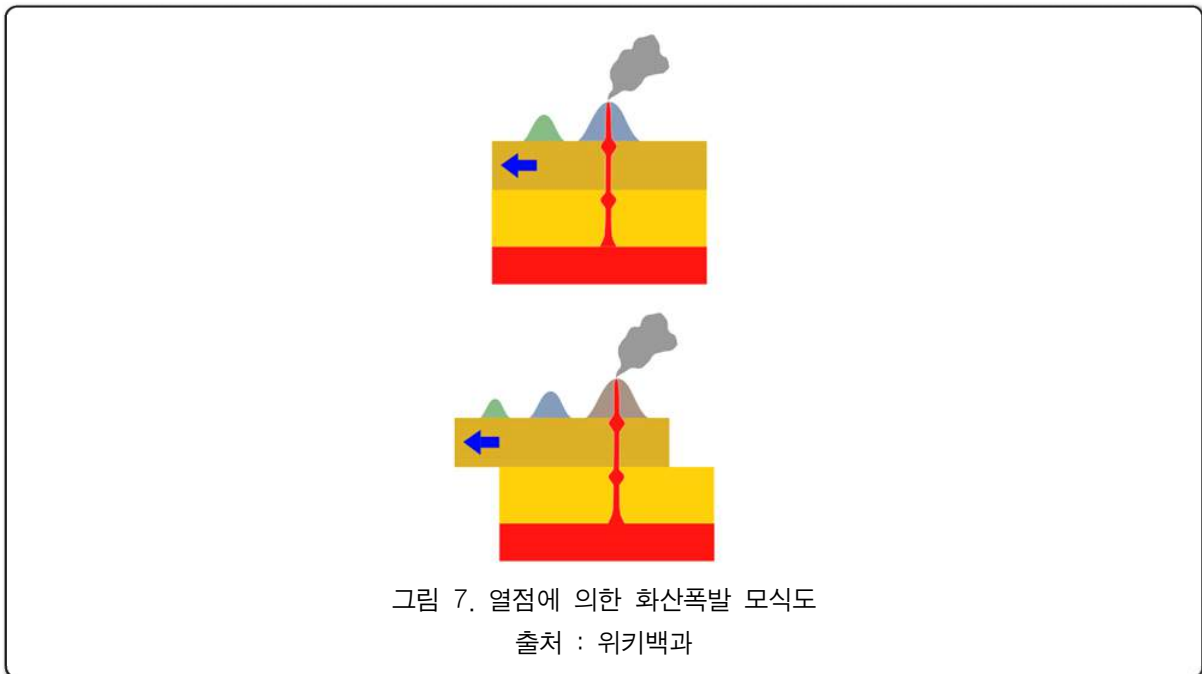


#### (1) 판구조(plate tectonic)이론

- 지각은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성
- 상이한 두 개의 판이 충돌하는 곳: 지진과 화산활동 발생
- 불의 고리(화산대)인 환태평양조산대와 알프스-히말라야 조산대

## (2) 열점(hot spot)이론

- 화산활동: 판의 경계가 아닌 판의 내부 열점
- 열점은 지각 아래에 놓여있는 맨틀의 한 지점으로부터 공급된 마그마가 판의 이동과는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상승하여 지표를 뚫고 나와 폭발
- 하와이 제도를 비롯, 아이슬란드,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 우리나라의 백두산-울릉도-독도



### (3) 구성암석 및 형성시기

- 독도와 울릉도 화산암류는 동일
- 독도 : 460만년전~250만년전 형성
- 울릉도 : 250만년전~1만년전

### (4) 화산활동 단계

- 1단계 : 수중에서 조용한 용암분출(각력질 조면암류 형성)
- 2단계 : 해저산이 성장하여 수면위로 상승(폭발적인 화산분출: 각력응회암과 층상응회암 및 다량의 용암류 피복)
- 3단계: 조면암 관입, 기존 형성된 단층대 등을 통해 암맥상의 조면암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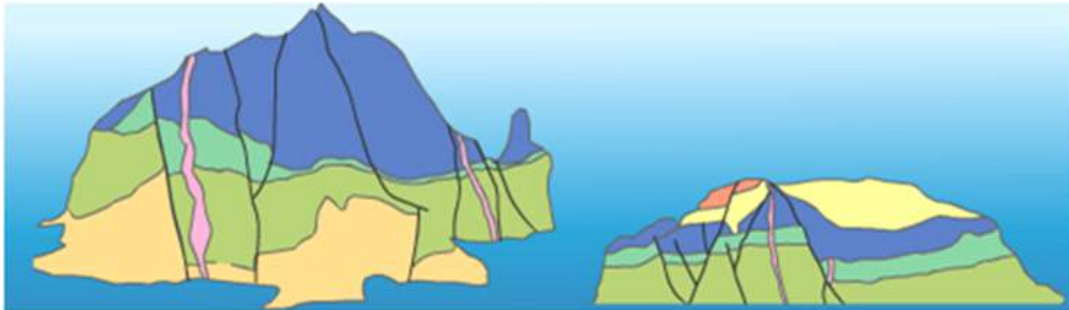


그림 9. 독도화산활동 단계(출처: 동북아역사재단)

## 2) 독도해산의 형태적 특성

- (1) 독도는 평균 수심 2,000m의 울릉분지 북동쪽 가장자리에 위치
- (2) 독도: 화구를 둘러싸는 외륜산(crater rim)의 일부
- (3) 평정해산(guyot) : 수심 200m까지 지역의 해저지형,
- (4) 독도해산 정상부: 폭 최대 13km, 수심 200-60m(2도 미만의 완만 평탄지)
- (5) 독도해산: 수심 200-1400m(16도의 급경사), 1,400-2,000m(7도의 완경사)
- (6) 독도해산 기저부: 폭 약 35km, 수심 약 2,100m, 해산 비고 약 1,800m
- (7) 독도해산 주변 많은 해저곡(valley)들 형성, 해저곡들은 심해 분지로 연결
- (8) 독도 반경 1km 이내 지역: 10m 이내 얕은 수심, 노출암이나 수중 돌출암 등이 불규칙하게 산재. 이러한 노출암, 간출암 및 수중 암초는 특히 서도의 남서 인접 해저에서 가장 잘 발달

### 3) 독도의 주요 지형경관

(1) 독도 지형은 신생대 제3기 말 화산활동이 전체적인 윤곽을 만들고, 제4

기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한 해수면 변동과 더불어 파랑의 침식과 퇴적, 바람, 염분에 의한 풍화작용 그리고 매스 무브먼트(mass movement) 등의 작용에 의해 형성

(2) 주요지형 경관

- 화산지형 : 주상절리,
- 해안지형 : 파식대, 해식애, 해식동, 해식아치, 시스택, 자갈해안
- 풍화지형 : 타포니, 침식와지(구조선에 의한 차별침식)
- 퇴적지형 : 애추(talus)



코끼리바위와 독립문바위(해식아치와 해식애),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삼형제굴바위(해식아치),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탕건봉과 서도(주상절리, 타포니 발달)



천장굴(함몰와지와 해식동)



장군바위(시스택)



서도 전경(해식애, 애추지형, 파식대, 자갈해안, 시스택 등이 발달)

그림 10. 독도의 주요 지형경관

#### 4) 독도의 기후

##### (1) 독도는 같은 위도상의 육지에 비해 해양성 기후의 성격

- 겨울은 비교적 온화, 여름은 더위가 심하지 않고 강수 분포도 연중 고름

##### (2)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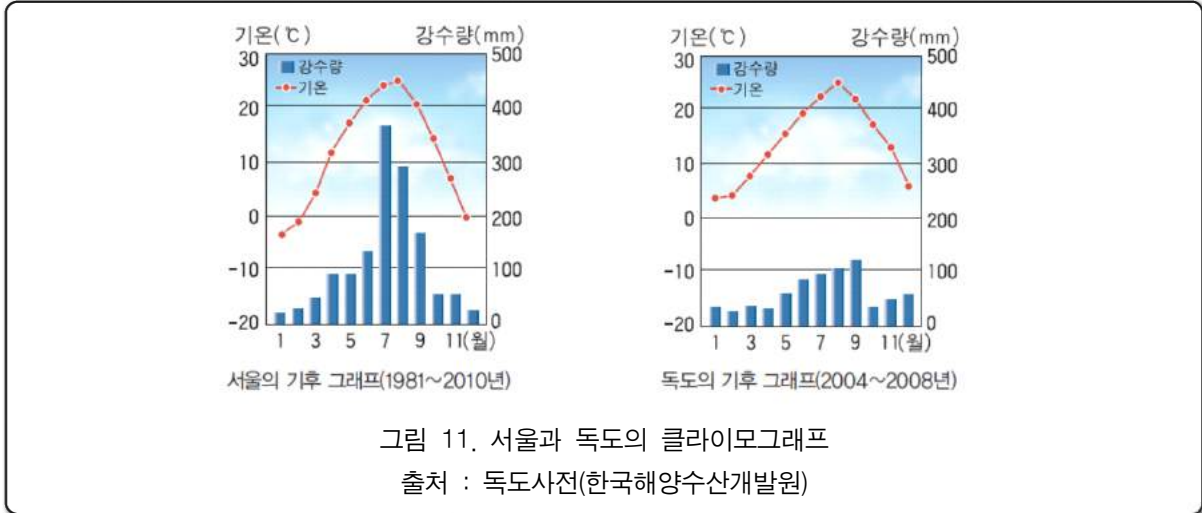
- 수심 깊고 표면적 넓어 여름철 : 24~25℃, 겨울철: 9~10℃의 온도
- 독도 월평균 기온 : 울릉도와 유사(1월, 2월 기온이 낮고 8월 기온 최대)

##### (3) 강수량

- 울릉도,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9월 강수량>8월 강수량
- 6~9월 강수량 : 연강수량의 43%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적음
- 겨울철 강수량 : 연강수량의 25%로 비교적 많음.
- 연간 강수량 : 독도(약 1,460mm), 울릉도(1,16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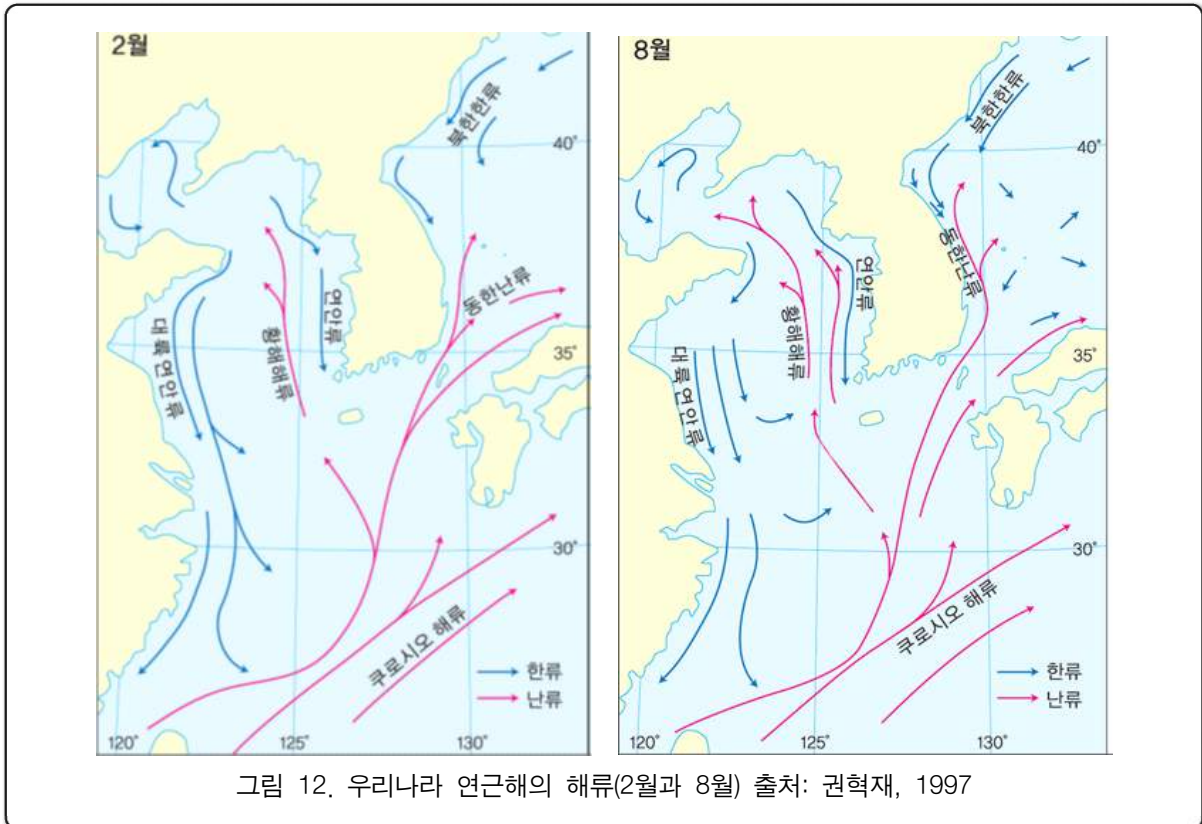
(4) 바람

- 평균풍속 4.3m/sec.(울릉도보다 강함), 주된 풍향은 남서풍과 동풍
- 풍속이 가장 강한 달은 4월이고 가장 약한 달은 10월



5) 독도 주변의 해류와 어장

(1) 해류



## (2) 어장

- 독도 주변 :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청정수역(플랑크톤 풍부)으로 회유성 어족 풍부,
- 영양염류 풍부 : 식물플랑크톤과 동물플랑크톤 서식에 유리
- 쿠로시오난류에서 갈라져 나온 쓰시마난류가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로 흘러 들어온 후 북쪽으로 흘러 독도 근처에서 북한한류와 만나기 때문에 난류와 한류에 서식하는 생물이 모두 출현하여 생물의 종류가 다양
- 주요 어족 및 수산자원: 멸치, 방어, 고등어, 전갱이, 돌돔, 병에돔, 정어리, 청어, 명태, 대구, 꽂치, 연어, 불락, 자리돔, 쥐치, 참가자미, 오징어 등 100여 종을 상회, 붉은 대게,
- 해조 식생이 한반도 남해안이나 제주도과 유사: 홍합, 소라, 해삼, 전복, 문어, 성게, 미역, 김, 게, 새우 등 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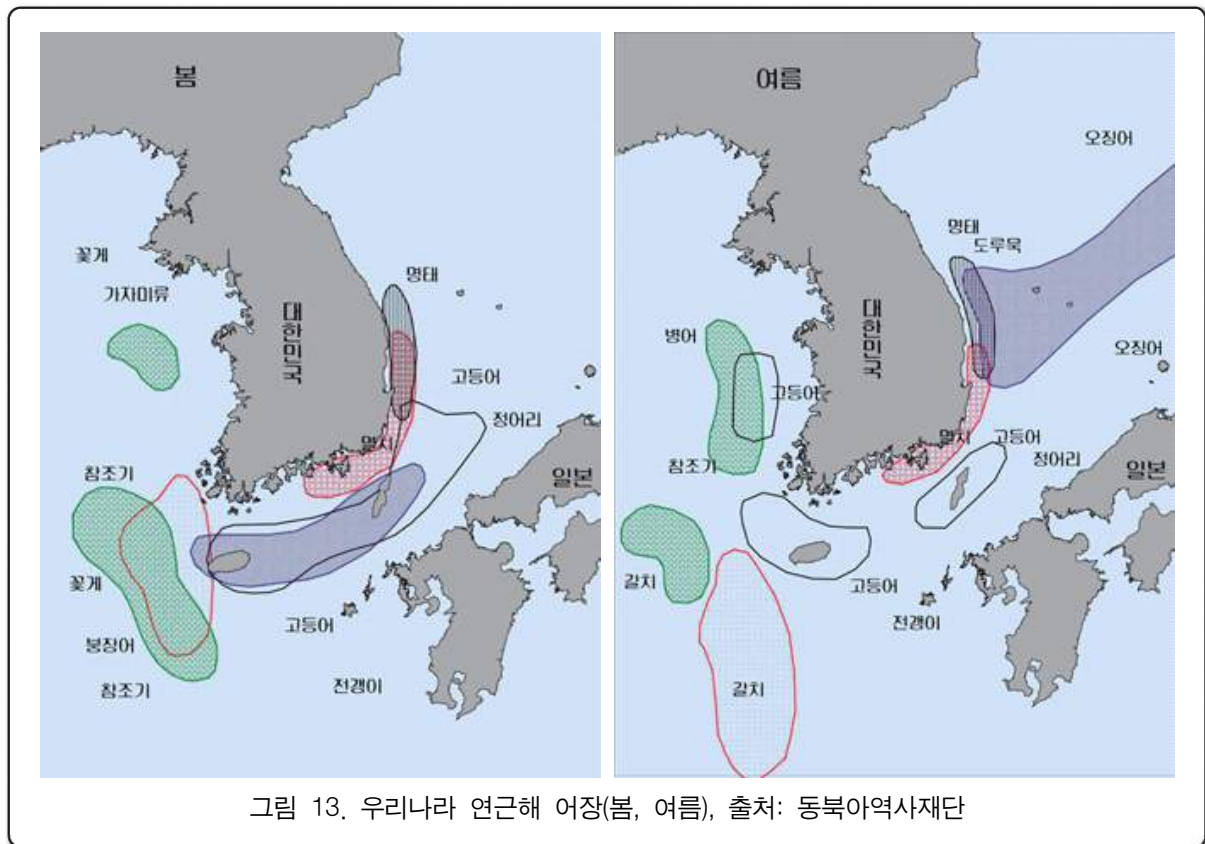


그림 13.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봄, 여름), 출처: 동북아역사재단

## 4. 독도의 생태계와 자원

### 1) 동식물 생태계

#### (1) 동물 생태계

- 조류 : 텃새인 꿩이갈매기·노랑지빠귀·물수리·바다제비·습새·황조롱이 등과 철새인 까마귀·노랑발도요·딱새·흑비둘기·흰갈매기 등, 이중에 꿩이갈매기·바다제비·습새의 서식지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
- 곤충류 : 나비·노린재·딱정벌레·매미충·메뚜기·벌·잠자리·집게벌레·파리 등, 독도에서 우점종을 이루는 곤충은 딱정벌레목(전체 곤충의 27.5%)
- 포유류 : 예전에 강치(가지어) 서식

#### (2) 식물 생태계

- 독특한 지형과 지질 특성으로 토양층 발달 미약, 급경사로 인해 많은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보수 능력 부족
- 식물은 대체로 키가 작고 잎이 두텁고 잔털이 많은 특징: 키가 작은 것은 강한 바다 바람에 적응하기 위함, 잎이 두텁고 잔털이 많은 것은 가뭄과 추위에 잘 견디기 위함
- 초본류와 목본류로 약 80여 종
- 독도는 강한 해풍으로 인해 염분이 많아 서식환경 척박,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 강한 식물 서식
- 독도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은 나무를 포함하여 50~60종
- 대표적 식물 : 왕해국, 왕호장근, 섬기린초, 초종용, 땅채송화, 소리쟁이, 도깨비쇠고비, 갯까치수염, 번행초 등
- 독도의 식물 종을 울릉도와 일본 오키노시마의 식물 종과 교차 분석 결과: 독도 식물 종은 울릉도로부터 바람에 실려 날려 온 사실 확인(한국해양수산연구원), 독도 식물 종을 통해서도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입증
- 토양 : 산정상부에서 풍화하여 생성된 잔적토로서 토성은 사질양토이며, 경사 30도 이상의 급격한 평행사면을 이루는 흑갈색 또는 암갈색의 토양.
- 토심 : 대부분 30cm 미만으로(깊은 곳은 60cm) 식물뿌리에 밀착되어 있어 토양유실 가능성은 낮음, 서도에서 일부 노출된 토양은 유실현상 나타남

## 2) 에너지 자원과 광물자원

### (1) 울릉도 남동쪽 울릉분지에서 발견된 천연가스와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 천연가스: 1998년 발견, 울산 앞바다 남동쪽 58km 지점에 위치한 동해-1 가스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액화천연가스(LNG)로 환산하면 약 5백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2004년 천연가스 생산 시작
- 가스 하이드레이트: 2007년 울릉도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동해상에서 발견.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메탄가스가 심해저와 같은 고압, 저온 상태에서 고체화된 결정 덩어리로, 성분이 액화 천연가스와 동일(새로운 에너지원)
- 미래 에너지원: 동해의 강한 파도를 이용한 파력 발전, 수심이 깊은 동해의 표층과 심층 해수의 수온 차이를 이용한 온도 차 발전 등

### (2) 광물자원

- 인산염 광물 : 독도 주변 해저에 부존, 비료나 사료, 합성세제 등에 활용. 인산염 광물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독도 일대의 해산, 분지, 대륙사면 등에 상당량의 매장량 확인.

## 3) 수자원과 관광자원

### (1) 수자원

- 심층수 : 수심이 200m보다 깊은 심해에 존재
- 심층수는 식수, 음료, 식품, 화장품, 주류, 냉방, 수산 양식 등에 활용

### (2) 관광자원

- 화산작용으로 형성된 독도: 수려한 지형경관을 가지는 관광자원
- 생태관광의 보고 :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탐조), 고래 조망 장소
- 기타 군사적 가치, 지정학적 가치, 생태적 가치 등 중요

**(참고문헌)**

-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
- 국토지리정보원, 2007,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 권혁재, 1997, 자연지리, 제2판, 법문사
- 동북아역사재단, 2016, 고등학교 독도바로알기
- 동북아역사재단, 2016, 중학교 독도바로알기
- 동북아역사재단, 2016, 초등학교 독도바로알기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홈페이지(www.dokdohistory.com/main.do)
- 삼국사기
- 삼국지
- 세종실록지리지
- 울릉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울릉군-, 학술조사보고 제23책, 매일  
원색정판사
- 울릉군청 홈페이지(www.ulleung.go.kr)
- 위키백과
-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 전영권, 2006, 독도의 지형지(地形誌), 한국지역지리학회지(한국지역지리학회), 11(1). 19-28
- 한국고지도집 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 2012, 한국의 표상, 푸른길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홈페이지(www.kiost.ac.kr)
- 한국해양수산개발원(www.kmi.re.kr)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독도사전
- 황상구·전영권, 2003, 독도 화산의 분출윤회와 화산형태, 자원환경지질(자원환경지질학회),  
36(6), 527-536
- <http://blog.naver.com/a308501?Redirect=Log&logNo=10086254537>



2016학년도



2016년도 독도 교원집합연수 자료집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교원 집합연수 현장사례”

(1차 - 7/16, 2차 - 8/13, 3차 - 8/27)



구 종 형  
울곡고등학교



# 독도 콘텐츠 수업(학생 작품 소개 및 체험활동)

## 1. 교수 - 학습 과정안

대단원명	독도		일시	2016.7.16-8.27	차시	3/5
소단원명	독도와 대한제국		장소	역사사랑방	지도 교사	구 중 형
학습 목표	1. 독도의 역사와 진정한 주인의식을 이해한다. 2. 왜곡된 실체를(사료, 지도)를 이해하고, 한·일간 쟁점을 이해한다. 3. 향후 우리의 자세와 대응을 알아본다.					
학습 매체	교사			학생		
	컴퓨터, 전자칠판 활동 학습지, 동영상과 사진 자료			컴퓨터 및 전자칠판 1. 역사작품 자료(사진, 동영상, Ppt) 2. 활동 평가지(Quiz, Puzzie)		
단계	교사		학생		자료 유의점	
도입	본시 수업 안내	▶매체활용수업에 대한 요약 안내  “내건데, 우리 건데” 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 보다, “왜 내 건지, 왜 우리 건지” 라는 생각을 유도해 본다.		▶매체를 활용한 수업의 필요성 방법의 이해		프로젝트 수업 1. 강의식 2. 발표식 3. 체험식
	학습 동기 유발	▶학습동기유발 지난 시간 학습내용 요약정리 및 확인 (간도 이해 요약정리)		▶ 참여 ▶ 확인, 인지		
	학습목 표제시	▶본시 학습 목표 제시		▶ 학습 목표 인지		
전개	생각 쌓기	▶ <b>생각쌓기</b> (다양한 자료· 매체를 활용) 1. 독도?(학생들의 생각 쓰기) 2. 전반적 흐름 특징 이해(이해) 3. 조별 발표(고대와 중세 도교 비교) ※모둠별 과제 조사확인, 학습지 활용		▶모둠별 과제물 활용 ▶학습지 활용 ▶각자 받은 학습지에 답하기		-학습 프린트 (교사) -PPT 활용
	감상 하기	▶ <b>감상하기</b> (독도와 동해 동영상) - 독도 동영상 이해(4'20", 3'28") - 학생 작품 동영상 (4 '20 ")		▶준비된 자료 감상하기 ▶감상 소감 이야기하기		-노트북 -전자칠판 -비디오 -CD
	참여 하기	▶ <b>참여하기</b> (생각하기+감상하기) - Quiz, Puzzie 중심으로 ※활동 평가지 배부, 평가지도		▶활동평가지에 참여, 체크하기		-PPT 활용
정리 및 평가	정리 및 평가	▶ <b>평가하기</b> (PPT 제시) -형성평가-문제 풀기 -칭찬 및 보완점 지도  ▶ <b>제시하기</b> (차시예고 및 과제제시)		▶평가지 작성하기 -물음에 정리하고 답하기  ▶과제 제시(예습하기), 정리		-사진 자료

## 2. 향후 계획

### 1) 교사의 역할

- 독도를 통한 문화재 교육과 보존의식을 꾸준히 인식  
(ex.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인식)
- 독도를 통한 역사교육의 중요성과 주인 의식 이해
- 사료와 지도를 중심으로 왜곡된 역사 바로 잡기
-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인 대상 독도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계획
- 원어민 대상 독도교육 중요성 인지 및 독도 교육 필요성 절감

### 2) 우리 노력과 자세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 주장에, 효과적인 대응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

-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 연구 추진
- 외교적인 역량 발휘 및 주변국과 체계적인 공동연구
- 국가와 민간 차원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 외국어 번역본 자료집 제작 홍보
- 인재발굴 및 각종 콘텐츠 개발(ex. 인터넷, 만화, 방송, 공예 등)
- 역사적 사료 발굴 및 DB 자료 구축
- 주변에 있는 외국 지명 바로잡기

### 3) 일본 측 향후 전망

- 매년 죽도의 날 행사, 독도관련 교과서 왜곡 등으로 일본에서의 독도여론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 있음
- 일본은 국제적으로 독도문제를 적극 홍보하여, 이슈화할 것으로 전망
-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기 위해, 해양조사 강행 등을 돌발적으로 시도할 가능성 있음

### 4) 우리의 대응

-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고 분명한 원칙을 갖고, 효과적 대응 조치 필요 일본의 독도 도발은 과거 일제강점기의 침략적 근성을 드러내는 의도임을 인지
- 역사적 측면에서 우산도, 석도가 독도라는 사실의 근거자료를 연구
- 국제관례 및 유사 사례를 통해 예상 상황을 감안, 국제법적으로 대응 준비
  - ☞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

### 3. 독도 수업지도안 및 자료

#### 1) 수업지도안 자료

- 학생들의 독도에 대한 생각
- 수업 자료 (설문조사)
- 수업 자료 (독도의 가치)
- 수업 자료 (고문서와 고지도)
- 수업 자료 (일본 고문헌과 고지도, 외국 고지도)
- 수업 자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
- 수업 자료 (향후전망, 우리의 대응)
- 수업 자료 (한·일 쟁점 비교)
- 수업 자료 (형식 - 동영상, Flash animation, Ppt)

##### 1) 동북아역사재단 작(作)

독도 동영상 (4'20"), 동해 동영상 (3'28") 등

2) 교사 제작 : 대한의 독도여, 동해 바다를 넘어 뛰어라!(4'50")

3) 학생 작품 동영상 3편 (4'20", 6'10", 8'20")

- 독도 Puzzle + Quiz

1) 교사 제작 및 학생제작 (3편) : 초급용(초등), 중급용(중·고등용)

- 독도 슬라이드 퍼즐 체험
- 독도 열쇠고리 체험
- 독도 히팅 스탬프 체험

#### 2) 독도 기타 자료

- 독도 교육용 홍보물 제작

1) 독도 책갈피, 2) 독도 팸프렛, 3) 독도 필통

4) 독도 버튼, 5) 열쇠고리 6)독도석고 방향제 및 비누

- 독도 탐방 일정표
- 독도 배너, 현수막 등
- 독도 조끼 제작
- 독도 서명운동

수업 자료 (Ppt 및 기타자료)



## 들어가기

- 역사교육의 '아이러니'
- 'If의 歷史'와 '?의 歷史'
- 할아버지와 스토리텔링(Storytelling)
- 역사교육의 중요성
- 독도와 동해
- 문화재와 독도

### 1) 역사교육의 '아이러니'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신(神)들은 알면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신(神)들은 잘 모르는,

일본 '세키가하라전투'는 잘 알면서  
계백장군과 베트남전쟁 때 한국군 파병을 모르는,

황인종의 원(原)조상인 상동인보다  
백인종의 크로마뇽인을 더 잘 아는,

230년에 불과한 미국 역사 교과서보다 더 얇은,  
우리 역사교과서를 보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낀다.

### 2) 'If의 歷史'와 '?의 歷史'

'만약'~이란 가정이 없는 역사에서  
'만약'~이라고 물음표(?)를 가정 해 본다면!

이를테면!!

- 신라가 아닌,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더라면?
- 이자겸이 아닌, 서경천도운동을 주장한 묘청 일파가 집권했더라면?
- 동(同)시대인이고, 같은 집안이면서도 봉당이 달라 협력하지 못한 이율곡과 이순신이 만났더라면?
- 효종의 북벌운동이 실행 되었더라면?
- 정권을 장악하지 못한 실학자들의 주장과 개혁이 국정에 반영 되었더라면?

### 3) 할아버지와 스토리텔링(Storytelling)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에,  
영화 '전우치'와 '흥길동'을 통해  
도교의 사상과 종교를 이야기 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훨씬 풍부한 상상력과  
다양한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신장되어  
사회과 기피 대상 첫 번째 과목에서  
재미와 흥미와 스릴까지 배가 되는  
가슴 떨리는 흥분의 역사수업이 되지 않을까?

### 4) 역사교육의 중요성

3월초, 아이들과의 첫 만남, 첫 수업, 첫 시간.  
올 한해는 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신나고 즐거워할까?  
시작 중의 울림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 딛어 본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로 시작하는  
E.H Carr의 표현을 빌려,  
역사를 이렇게 정의해 본다.

歷史?

'학생과 교사의 끊임없는 대화' 라고.

### 5) 독도와 동해

자주 찾기는 쉽지 않지만,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롯이 자리잡고 있는 독도!  
독도를 이야기하며 동해도 같이 아파해 보자

흔히 우리는 동쪽바다를 동해,  
남쪽해안을 남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지도에는  
서해가 아닌 왜 황해라고 쓰여 있는지...

남의 팔을 내 것이라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이  
"내 깐대, 우리 깐대"라고 라고 단순히 말하지 말고  
"왜 내 것인지, 왜 우리 것인지를"  
이제는 명확히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 6) 문화재와 독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많은 사람들은  
해상국립공원이라 알고 있지만,  
독도는 해상국립공원이 아닌  
천연기념물 제 336호에 해당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이다.

독도와 함께 체험학습 중심으로,  
다양하고 생생한 자료를  
학생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교실 밖으로의 역사여행을 함께하는  
본교 독도지킴이 "에터블기"를 이야기해 본다.

### 독도 교원 집합연수 현장 사례발표



### 발 표 개요

#### 1. 수업 목표

#### 2. 오늘 수업은!

- 설문조사
- 생각열기
- 감상하기
- 체험하기
- 참고하기
- 참여하기
- 형성평가(Quiz + Puzzle)

### 1. 수업 목표

우리 땅, 우리 역사 비로 알기

- 독도에 대한 소중함과 국토애를 기른다.
- 진정한 주인 인식을 키운다.
- 왜곡된 실체를 올바르게 인식한다.

목적과  
동아가기

### 1) 설문조사

#### ■ 조사배경



#### ■ 조사방법



#### ■ 조사대상

- 울곡고 1학년: 13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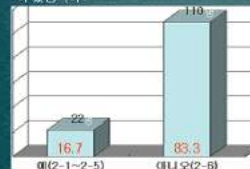
### - 분석

1. 평소 독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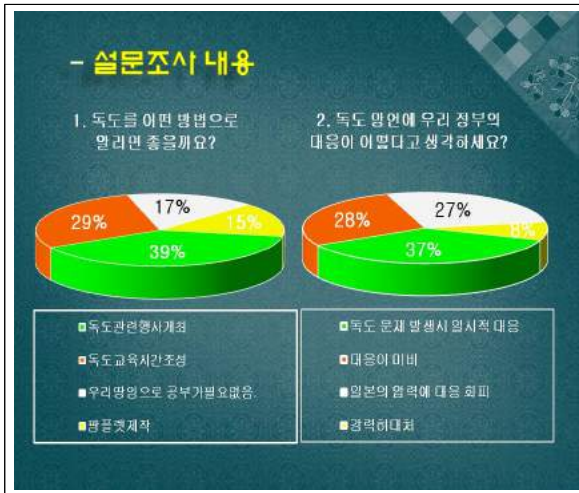


■ 독도의 관심에 대한 물음에 40.1%인 절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그저 그렇다', 12.9%는 '관심이 없다'라는 응답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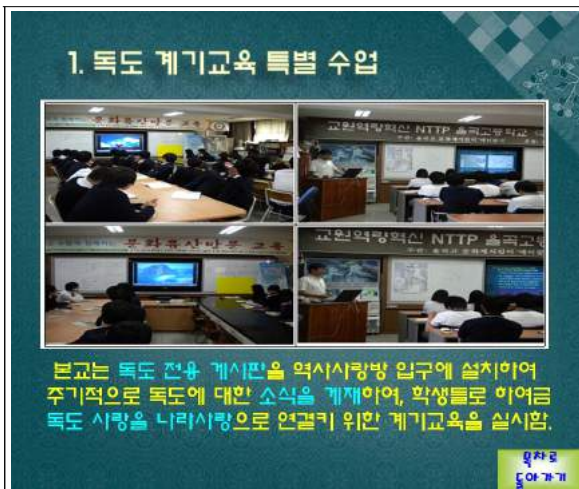
2. 수업시간 외 독도에 관련하여 공부할 만한 적이 있었습니까?



■ 132명 중 83.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수업시간 외 독도에 대해 공부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의 매스컴을 통해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으로 나타남.



- ### - 분석 결과
- 역사 의식 함양과 역사 교육의 필요성  
ex) 독도 계기교육의 필요성
  - 전반적인 환경, 시설, 자료 제공  
ex) 팸플릿 등 홍보물 제작 배부
  - 독도 관련 행사 개최  
ex) 독도 자료 제공
  - 안전 불감증 장애극복  
ex) 내 건데.. 우리 건데... 라는 안일한 생각.
  -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육의 필요성.  
ex) 일회성이 아니다.



- ### - 나에게겐 독도란?
- 독도란 시계이다.  
☞ 자주 들여다 봐야 하고, 들리면 바르게 맞춰 줘야 하기에.
  - 독도란 떡이다.  
☞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섬나라인 일본 사람들은 자기 떡보다 적은 독도가 더 탐나 보이기때.
  - 독도란 스마트폰이다.  
☞ 적지만 다양한 기능과 가치가 있고,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이기때
  - 독도란 친하지 않은 친구이다.  
☞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만 친하지 않은 친구를 찾는 것처럼, 독도에게 꾸준한 관심이 아닌 필요할때에만 관심을 주기 때문에.
  - 독도란 구종형 선생님이다.  
☞ 선생님처럼 몸장하기도하고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 독도란 열쇠이다.  
☞ 열쇠는 항상 가지고 있고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 독도란 동쪽의 빛나는 작은별이다.  
☞ 동쪽에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나라를 빛내주기 때문이다.
- 독도란 음표이다.  
☞ 악보에서 음표 하나만 빠져도 아름다운 음악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없기에
- 독도란 일진이다.  
☞ 의리 있게 우리 곁에 있고 일본에서 유혹해도 꾀꼬리처럼 잘 버티기에
- 대한민국의 마침표다, 독도는 골키퍼이다  
☞ 골키퍼는 한명 밖에 없고 꼭 필요한 존재이기때
- 필통속의 지우개이다  
☞ 필통속의 지우개는 필통 주인인 것이 당연하기에

### - 학생들의 생각 (표어)

1. 대한의 독도여, 푸른 동해를 넘어 뛰어라!
2. 심심하면 독도 방문, 듣는 것도 하루 이틀!
3. 우리 땅! 우리 역사! 우리가 지킨다!
4. 강치의 고향, 아름다운 섬 우리땅! 우리 독도!
5. I Love Dokdo Forever ~!
6. 사천만의 독도사랑 우리 독도 지켜낸다
7. 독도사랑 우리 사명, 독도수호, 우리 생명

목차로 돌아가기



### 감상하기

학생 여러분! 우리가 만든 독도(獨島) 작품들을 보면서 공부할까요?

목차로 돌아가기

### 1. 독도 바로 알기 우수작품(그리기 부문)


본교는 독도 전용 게시판을 역사사랑방 입구에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독도에 대한 소식을 게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독도 사랑을 나라사랑으로 연결키 위한 계기교육을 실시함.

목차로 돌아가기

### 2. 독도 바로 알기 우수작품(그리기 부문)


본교는 독도 전용 게시판을 역사사랑방 입구에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독도에 대한 소식을 게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독도 사랑을 나라사랑으로 연결키 위한 계기교육을 실시함.

목차로 돌아가기

### 3. 독도 바로 알기 우수작품 (그리기부문-만화)


본교는 독도 중앙보고서로 작성 발표하여 독도를 주제로 직접 체험하여 학생들의 나라사랑으로 인식 고취.

목차로 돌아가기

### 4. 독도 바로 알기 우수작품(만들기 부문)


목차로 돌아가기

### 5. 독도 바로알기 우수작품(동영상부문)

본교는 독도 전용 게시판과 역사사랑방 입구에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독도에 대한 소식을 게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독도 사랑을 나라사랑으로 연결키 위한 계기교육을 실시함.

작성자: 동아내기

### 6. 독도 바로 알기 우수작품 (동영상부문)

본교는 독도 전용 게시판과 역사사랑방 입구에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독도에 대한 소식을 게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독도 사랑을 나라사랑으로 연결키 위한 계기교육을 실시함.

작성자: 동아내기

### 7. 교내 독도 바로알기 작품공모전 시상식

글쓰기부문 최우수상 3-2 조현준	그리기부문 최우수상 2-2 우연희	만들기부문 최우수상 3-3 남희준
-----------------------	-----------------------	-----------------------

본교는 독도 전용 게시판과 역사사랑방 입구에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독도에 대한 소식을 게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독도 사랑을 나라사랑으로 연결키 위한 계기교육을 실시함.

작성자: 동아내기

### 8. 독도 바로알기 작품공모전 상장 양식

등위	글쓰기	그리기	만들기	비고
최우수 (1위)	조현준 (3-2)	우연희 (2-2)	남희준 (3-3)	
우수 (2위)	이종민 (1-1)	지민서 (3-4)	박하진 (3-3)	상장 및 문화 상품권 40만원
	박재은 (1-1)	오지현 (2-2)	이호준 (3-2)	
장려 (3위)	이재준 (3-4)	이소연 (1-1)	윤다은 (3-4)	상장
	남성아 (1-2)	이동준 (2-3)	서진아 (1-4)	
	임현호 (3-2)	서연애 (3-4)	구재영 (2-2)	

본교는 독도 전용 게시판과 역사사랑방 입구에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독도에 대한 소식을 게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독도 사랑을 나라사랑으로 연결키 위한 계기교육을 실시함.

작성자: 동아내기

### 2. 독도거점학교 및 본교 교사 독도탐방

본교는 독도 전용 게시판과 역사사랑방 입구에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독도에 대한 소식을 게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독도 사랑을 나라사랑으로 연결키 위한 계기교육을 실시함.

작성자: 동아내기

### 3. 역사체험발표대회 참가(주제-독도)

본교는 독도 종합보고서로 작성 발표하여 독도를 주제로 직접 체험하여 학생들의 나라사랑으로 인식 고취.

작성자: 동아내기

### 4. 전국나라사랑 토론대회 참가(주제-독도)



본교는 독도 전용 게시판을 역사사랑방 입구에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독도에 대한 소식을 게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독도 사랑을 나라사랑으로 연결키 위한 계기교육을 실시함.

문자로  
달아 가기

### 5. 정기답사 모듈별 발표(지정주제-독도)



본교는 독도 중앙보고서로 작성 발표하여 독도를 주제로 직접 체험하여 학생들의 나라사랑으로 인식 고취.

문자로  
달아 가기

### 9. 본교 축제 독도 우수작품 전시



독도 사랑을 나라사랑으로 연결키 위한 계기교육을 실시함.

문자로  
달아 가기

### 12. 동아리박람회 독도전시회



본교는 독도 전용 게시판을 역사사랑방 입구에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독도에 대한 소식을 게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독도 사랑을 나라사랑으로 연결키 위한 계기교육을 실시함.

문자로  
달아 가기


### 12. 지역축제 올곡문화제 독도 퍼즐 체험활동



본교는 독도 전용 게시판을 역사사랑방 입구에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독도에 대한 소식을 게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독도 사랑을 나라사랑으로 연결키 위한 계기교육을 실시함.

문자로  
달아 가기

### 13. 독도 홍보활동 사진전시회



본교는 독도 전용 게시판을 역사사랑방 입구에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독도에 대한 소식을 게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독도 사랑을 나라사랑으로 연결키 위한 계기교육을 실시함.

문자로  
달아 가기

### 7. 독도지킴이 전용 게시판 운영

본교는 독도 전용 게시판을 역사사랑방 입구에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독도에 대한 소식을 게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독도 사랑을 나라사랑으로 연결키 위한 계기교육을 실시함.

문자로 돌아가기

### 8. 독도지킴이 홈페이지 블로그 운영

<http://blog.cha.go.kr/club/personalClubMain.vw?clubId=ancientsearch>

문자로 돌아가기

### 1. 독도 교육용 퍼즐 체험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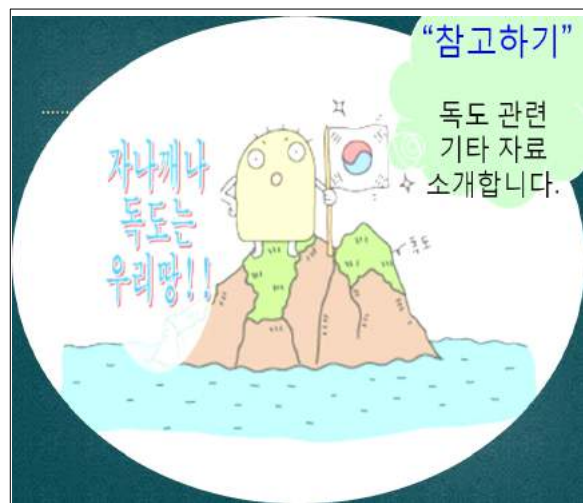
본교는 독도 전용 게시판을 역사사랑방 입구에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독도에 대한 소식을 게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독도 사랑을 나라사랑으로 연결키 위한 계기교육을 실시함.

문자로 돌아가기

### 5. 독도 홍보 게시판, 현수막, 배너 제작

**"우리 땅! 우리 역사, 우리가 지킨다"**  
**독도거점학교 선정 올곡고등학교 독도지킴이**  
 주관 : 올곡고 '예터활기' <http://blog.cha.go.kr/ancientsearch>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문자로 돌아가기



### 1. 황해가 아닌 서해로 표기된 교과서 지도

→ 윤요호의 1875년 이동로  
 → 윤요호의 1876년 이동로  
 ☆ 전투지

강화도 조약 체결 (1876. 2. 2.)  
 조지진 도착 (1876. 1. 4.)

윤요호의 이동 경로와 강화도 조약의 체결

한국사 - 삼화출판사, 2010

### 2. 기타 사진 자료

'대마도도 본시 우리나라 땅!' 이란 비석과 삽화 그림

### 3. 독도가 새로운 도로명을 갖게 됐다!

지난 2011-06-16 일제강점기 때부터 쓰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0-3번지' 라는 지번명 주소를 버리고 독도 이사부길과 독도 안용복길 등 새로운 도로명을 갖게 됐다. 지명은 2008년 국민 공모를 거쳐 결정되어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한 데에 대하여, "100년 전 일제 강점기에 부여된 지번 주소를 바꾸는 것을 독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고 전했다.

문화관광  
 동아가게

### 참여하기

학생 여러분! 재미있는 Quiz + Puzzle로 신나게 떠납니다.

### 7) 형성평가 (독도 Quiz + Puzzle)

1. 초급용 (초등학교)
2. 중급용 (중고등학교)

### Dokdo Quiz

리	일	전	정				
사							
대					3, 서	도	
이							
사							
부							
다	케	시	마				

가로열쇠  
 세로열쇠

감사합니다

**가로 열쇠**

11. 조선 후기 수군총신이자 어부이고 민간외교가이며, 율령도에 나갔다가 일본 사람들이 고기잡는 것을 보고 이를 문역하고 일본에 찾아가 막부의 시과를 받아온 이 사립은?

**세로 열쇠**

10. 일본 역선과 순시선에 앞서 독도를 지켜낸 민간 조직으로, 동순환을 대상으로 율령도 항년 45명이 출정한 이 단체는?

### 4. 독도 계기교육 및 학생발표

본교는 독도 전용 게시판을 역사사랑방 입구에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독도에 대한 소식을 게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독도 사랑을 나라사랑으로 연결키 위한 계기교육을 실시함.

동북아역사재단

### 4. 독도의 가치?

<p><b>군사적 가치</b></p> <p>독도는 한반도 동해안에서 동쪽으로 114km 떨어진 곳에 있다. 동해안 방위상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p>	<p><b>지형·지질학적 가치</b></p> <p>독도는 동해안에서 동쪽으로 114km 떨어진 곳에 있다. 동해안 방위상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p>
<p><b>경제적 가치</b></p> <p>독도는 동해안에서 동쪽으로 114km 떨어진 곳에 있다. 동해안 방위상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p>	<p><b>생태적 가치</b></p> <p>독도는 동해안에서 동쪽으로 114km 떨어진 곳에 있다. 동해안 방위상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p>

동북아역사재단

### 독도의 가치?

가격, 매길 수 없어!

동북아역사재단

### 독도 바로 알기 우수 작품 동영상

[Video Player Area]

만약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제소가 된다면?

### (4)-5 독도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해좌전도(1850년대),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1530)

### (4)-6 독도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만기요람(萬機要覽1808년): (순조8년)에 서영복(徐榮輔), 심상규(沈象奎)등이 왕명을 받아 왕이 나라의 군정(軍政)과 재정(財政)을 관리하기 편하도록 만든 책이다.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 (4)-7 독도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 대한제국은 '석도'(독도)를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4)-7 독도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 대한제국은 '석도'(독도)를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6)-1 일본 고문헌과 일본 고지도

1696년 안용복 관련 조사보고서: 안용복의 2차 도일시 활동상황을 기록한 문서로 '죽도'(울릉도), '송도'(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을 명기하고 있다.

### (6)-2 일본 고문헌과 일본 고지도

조선국교제시말내담서(1870): 일본 외무성 문서로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밝히고 있다.  
 일본 태정관 지시문(1877년):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 말 일본 막부가 내린 도해금지조치를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내무성에 지시하였다.

### (6)-3 일본 고문헌과 일본 고지도



- ▶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1876년)**: 일본 해군성은 독도를 조선의 소속으로 표기하고 있다.
- ▶ **막부한경장일본지도(서일본부분, 1640)**: 일본의 북서쪽 한계를 오키섬까지만 표시, 일본정부와 막부도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함.

### (6)-4 일본 고문헌과 일본 고지도



- ▶ **은주시청합기 국대기(1667)**: “일본의 서북경계는 이 주(은주 = 오키섬)로써 끝을 삼는다.” 라고 명기
- ▶ **일본영역도(마이니치신문사편, 1952)**: 대일강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 정부도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

### (7) '조선왕국전도' 외 전후 연합국의 조치



- ▶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D' Anville)이 그린 자국의 '조선왕국전도' 지도에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표기 하였 습니다.
- ▶ **SCAPIN 제677호의 부속지도**: 1946년에 발령된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에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일본 행정구역에서 제외되었고 한국령으로 표시되어 있음.

### (8-1) 국제사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영토 주권에 비취볼 때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유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문이 없으므로 독도는 국제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8-2 국제사법재판소 사례 (독인에 의한 영유권 상실의 사례)

- **프레이 비히어 사원** (캄보디아와 태국)
- **동 그린란드 사태** (노르웨이와 덴마크)
- **어장에 기선 문제** (영국과 노르웨이)
- **필마스섬 분쟁** (미국과 네덜란드)
- **클리퍼드섬 분쟁** (미국과 멕시코)
- **히안섬 분쟁** (영국과 싱가포르)

※ 샌키쿤(다오위타오) 협도 분쟁 (일본과 중국)  
시할린 영토 분쟁 (러시아와 일본)  
포클랜드 영토 분쟁 (아일랜드와 영국)

### 8-3 영토분쟁 관련

#### \*프레이비히어의 사원

캄보디아의 크메르 왕조시기인 11c에 건축된 힌두교사원 캄보디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나, 태국은 자기 영토내 사원이 있다고 하여 두 나라사이에 프레이비히어의 사원을 두고 영토분쟁이 시작됨. 1959년 캄보디아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하고, 1962년 재판 결과 캄보디아의 승리로 판결남. 하지만 태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여전히 자국의 영토내 있는 사원이라 주장

#### \*국제사법재판소

심의: 비공개로 열림  
판결: 다수결로 결정  
특징: 법적 구속력을 지님  
그러나: 실효성은 없다.  
이유: 실제적인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

### (9) 일본측 향후 전망

○ 매년 죽도의 날 행사, 독도관련 교과서 왜곡 등으로 일본에서의 독도여론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 있음

○ 일본은 국제적으로 독도문제를 적극 홍보하여, 이슈화할 것으로 전망

○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기 위해, 해양조사 강행 등을 돌발적으로 시도할 가능성 있음

41



### 6)-1 독도지킴이 전용게시판 운영



본교는 독도 전용 게시판을 역사사랑방 입구에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독도에 대한 소식을 게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독도 사랑을 나라사랑으로 연결키 위한 계기교육을 실시함



### 6)-2 "독도는 한국땅" 외친 캄보디아 여인..사연은? (파이낸셜 뉴스 | 2011.06.27 11:34 | )



▲ 도 띠 티엔 씨가 캄보디아 현지 신문 '엔-솜복(N-SOMBOK)'에 실은 독도광고.

▲ '독도는 한국땅' 광고를 게재한 캄보디아인 도 띠 티엔 씨와 딸 이수진 씨, 남편 이정현 씨.

지난 17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독도는 한국땅'이란 진면광고를 내며 화제를 일으켰던 주인공 도 띠 티엔(30), 그가 현지신문 '엔-솜복(N-SOMBOK)'을 통해 거액인 자비를 들여 '독도는 한국땅' 진면광고를 게재하게 된 속내를 털어냈다.

티엔 씨는 현재 10년 전 결혼한 한국인 남편 이정현 씨(40)와 10살 난 딸 이수진 양(10)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다.

그는 "광고를 실행된 이후에 대해 갖는 일본의 '이런데 따라' '이쪽' '반쪽' 반쪽만을 결정했다"며 "다시는 캄보디아에 못 돌아올 수도 있던 생각에, 딸에게 얼마, 아빠의 두 나라에 대한 기억과 더불어 역사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캄보디아도 태극과 반애이티의 지역을 놓고 분쟁중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광고에 독도와 반애이티의 이름을 비교하는 내용을 실었다.

티엔 씨가 한달 간 광고를 위해 산문시 측에 지불한 금액은 3960달러(한화 약 430만원)로 캄보디아 평균 월급이 70달러(한화 약7만6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적지않은 액수이다.

그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 가운데 딸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10년 전부터 모인 돈을 광고비로 쓰게 됐다"며 "돈은 또 벌고 조금씩 남편 품에 모으면 된다"며 웃음 지었다. 그가 광고를 실은 사실을 전한 뒤였다. 이 씨는 저술 소식을 전해 듣고 힘을 냈지만 아내 고집만은 알기 쉽게 좋은 일을 했다며 기뻐했다고 한다.

그는 "남편이 동반 인터뷰를 기절했지만 인터뷰를 통해 캄보디아 사람들이 독도가 한국땅임을 알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부탁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엔-솜복 측은 인터뷰 후 광고비 전액을 원래의 취지인 필인 등록금으로 쓸 수 있도록 티엔 씨를 설득에 협력하고, 광고는 지속적으로 게재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longss@ifnnews.com 성조영기자



### 6)-3 독도 수호교육 참가



2009년 경기도에서 실시한 독도수호교육 일환으로 참여한 모슬과 호사키 유지 교수의 강연 모습.

### 6)-4 독도의용수비대와 흥순칠



1953년부터 일본과 중국전을 벌여가며 독도를 수비 해온 독도의용수비대장 흥순칠대장과 대원들

### 6)-5 기타 사진 자료

'대마도도 본시 우리나라 땅!' 이란 비석과 삽화 그림

### 6)-6 일본의 독도 홍보 및 사진자료

1. 일본 도로 주변 곳곳에 독도(독도)가 일본영토란 표시판이 보인다.
2. 일본 어부들에 의해 무참히 남획되는 독도 갯치

### 6)-7 독도가 새로운 도로명을 갖게 됐다!

지난 15일 일제강점기 때부터 쓰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0-3번지' 라는 지번형 주소를 버리고 독도 인사부길과 독도 안용복길 등 새로운 도로명을 갖게 됐다 지명은 2008년 국민 공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한 데에 대하여 "100년 전 일제 강점기에 부여된 지번 주소를 바꾸는 것을 독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고 전했다. (기사일자:2011-06-16,시진 출처: 연합뉴스) 동아일보



가로 열쇠

11. 조선 후기 수군총신이자 어부이고 민간외교가이며, 울릉도에 나갔다가 일본 사람들이 고기잡는 것을 보고 이를 문책하고 일본에 찾아가 막부의 사과를 받아온 이 사 람은?

세로 열쇠

10. 일본 여선과 순시선에 앞서 독도를 지켜낸 민간조직으로, 후손들을 대항으로 울릉도 청년 48명이 결성한 이 단체는?

# 끝

역사사랑방